

세미나자료 2023-03

2023년 KICCE 정책토론회

김미애 의원실-육아정책연구소-한국환경연구원 공동주관

미래세대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일시 2023. 5. 18. (목), 14:00

장소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최



경제·인문사회위원회

주관



국회의원 김미애



육아정책연구소



한국환경연구원

후원



환경부



PROGRAM

미래세대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 일시: 2023. 5. 18. (목), 14:00
- 장소: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관: 김미애 국회의원실, 육아정책연구소, 한국환경연구원
- 후원: 환경부

● 일정표

사회: 이재희 팀장(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

일정	세부내용	
13:30 ~ 14:00	등록	
14:00~14:20	환영사	정해구 이사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개회사	김미애 국회의원 (국민의힘,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 박상희 소장 (육아정책연구소)
	축사	금한승 실장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14:20~15:20	기조강연 ('20)	탄소중립과 돌봄 이창훈 원장 (한국환경연구원)
	발제 1 ('20)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지원 요구: 영유아부모와 유치원/어린이집을 중심으로 - 문무경 실장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데이터정책연구실)
	발제 2 ('20)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영유아 주류화 전략 - 정다운 연구위원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보건연구실)
15:20~15:30	휴식	
15:30~16:30	지정토론	좌장 이선경 교수 (환경부 환경교육위원회 민간위원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청주교육대학교) 토론 이재영 교수 (공주대학교, 전 국가환경교육센터장) 김대희 교수 (한국환경교육학회장, 순천대학교) 김정선 과장 (서울특별시청 기후환경정책과) 염정윤 단장 (한국환경연구원 환경교육연구단)
16:30~16:40	종합 논의 및 폐회	



CONTENTS

미래세대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 환 영 사

정해구 이사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 1

● 개 회 사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 3

박상희 소장(육아정책연구소장) 5

● 축 사

금한승 실장(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7

● 기조강연

탄소중립과 돌봄 9

이창훈 원장(한국환경연구원)

● 주제발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지원 요구: 영유아부모와 유치원/어린이집을 중심으로 21

문무경 실장(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데이터정책연구실)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영유아 주류화 전략 79

정다운 연구위원(한국환경연구원 환경보건연구실)

● 토 론

이재영 교수(공주대학교, 전 국가환경교육센터장) 101

김대희 교수(한국환경교육학회장, 순천대학교) 104

김정선 과장(서울특별시청 기후환경정책과) 108

염정윤 단장(한국환경연구원 환경교육연구단) 119

환영사

정 해 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해구입니다.

오늘 육아정책연구소와 한국환경연구원 그리고 김미애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책토론회에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의 정책토론회는 육아정책연구소의 박상희 소장님과 환경연구원의 이창훈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이창훈 원장님께서도 기조강연까지 맡아주셨습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미애 의원님과 축사를 맡아주신 환경부 금한승 기후탄소정책실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 올해에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최고기온 기록 경신이나 자연재해 발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년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9.5%가 기후변화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82.3%가 기후변화가 본인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으며, 특히 응답자의 92.3%는 미래세대가 기후변화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후문제에 대한 국민의 위기의식과 특히 미래세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얼마나 큰 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정책토론회의 주제는 「미래세대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기후위기가 미래세대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의 기후위기가 계속 심화된다면, 아마도 현재의 영유아가 성년으로 살아갈 2050~60년대의 기후위기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해질 것입니다. 일년 내내 이상기온과 자연재해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 평균온도를 1.5°C 상승으로 억제하고자 하는 2050 탄소중립 노력이 국제적으로 경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탄소중립 노력의 실질적 성과로 미루어본다면, 2050 탄소중립 달성도 쉽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기후위기가 미래 세대에 이러한 결과를 남긴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세대의 관점을 넘어 미래 세대인 영유아의 관점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어린이는 더 이상 단순히 보호해야 할 정책 수혜자를 넘어, 기후위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주체로서 인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기후위기를 어린이 권리의 위기로 인식하고, 기후변화 정책에서 어린이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우리나라도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의제인 기후 정책에 대한 육아정책연구소와 한국환경연구원의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래 세대인 어린이·영유아를 위한 기후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미래 세대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와 토론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 해 구

개 회 사

김 미 애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산 해운대를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바쁘신 중에 「미래세대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함께 마련해 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님,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책토론회를 함께 개최하고 「탄소중립과 돌봄」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 해 주시는 한국환경연구원 이창훈 원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축사를 위해 참석하신 환경부 금한승 실장님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로 인해 취학 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 수준에서 적응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대기오염, 극한의 날씨,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 신종 감염병의 증대 등은 영유아의 생존, 건강, 복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유니세프(2021)에서 역설했듯이, “기후위기는 아동 권리의 위기”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기는 기후위기에 적응하고, 그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완화하려는 실천적 행동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른 국가의 기후변화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영유아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의 정책토론회는 육아정책연구소와 한국환경연구원이 함께 영유아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의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개회사

발제를 맡은 육아정책연구소 문무경 실장님, 한국환경연구원 정다운 박사님, 좌장 역할을 해 주실 청주교대 이선경 교수님, 토론자 공주대 이재영 교수님, 순천대 김대희 교수님, 서울특별시청 김정선 과장님, 한국환경연구원 염정운 단장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고견들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육아정책연구소 임직원 여러분과 모든 참석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3년 5월 1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미애

개 회 사

박 상 희

육아정책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중요한 주제로 오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님, 토론회를 공동 주관해주시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원님과 한국환경연구원 이창훈 원장님, 그리고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신 환경부를 대표하여 축사를 위해 귀한 걸음 해주신 금한승 기후탄소정책실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환경과학자들은 최근의 기후변화 양상을 일컬어 ‘기후위기’를 넘은 ‘기후비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후문제에 대한 우려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최근 이상 기후, 환경오염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경험하면서 지구 환경위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환경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은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최근 유엔 아동사망률 추정 그룹(UNIGME)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어린이 500만 명은 5번째 생일을 맞이하지 못하였고, 1년 동안 5세에서 24세 사이의 어린이와 청소년 210만 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동 사망원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환경 오염, 코로나19를 포함한 전염병, 식량 부족 등이었습니다. 기후변화에 가장 책임이 없는 아동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아동에 대한 기후 변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취학 전인 영유아에 대한 기후변화 정책 내용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아동이 기후위기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개발에 아동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책토론회가 발판이 되어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정책이 활발하게 개발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도 앞으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이창훈 원장님, 주제발표를 해주실 육아정책연구소 문무경 실장님과 한국환경연구원 정다운 박사님, 토론 좌장을 맡아주신 환경부 환경교육위원회 민간위원장이신 청주교대 이선경 교수님, 토론에 함께 해주실 전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이신 공주대학교 이재영 교수님, 한국환경교육학회장이신 순천대학교 김대희 교수님,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 김정선 과장님, 한국환경연구원 염정운 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8일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

축 사

금 한 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실장

안녕하세요.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금한승입니다.

“미래세대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교육을 시작하는 생애 첫 단계이자 습관 형성의 결정적 시기인 영유아를 위해 기후환경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이 자리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의미있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개인, 기관, 기업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탄소중립 실천 활동이 중요합니다.

이런 공감과 실천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 교육이기에 영유아 기후환경교육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영유아 기후환경교육 현장이 보다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환경부도 영유아에 대한 기후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리자 및 교사들의 기후환경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금년에 새로이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자 및 교사 대상의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사학습공동체 지원사업을 초·중등 교사 대상에서 영유아 교사까지 확대했습니다.

유아들의 기후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함양하고자 매년 기후환경 관련 주제의 교보재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2010년 수도권 유아환경교육관 운영을 시작으로, 2013년 충남권, 2014년부터 충북권 유아환경교육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세 곳의 유아환경교육관



축사

교육 프로그램에는 연간 5~6만 명의 유아, 교사, 학부모들이 대면·비대면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후환경교육에 참여하는 유아 약 5만 명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1백만여 명의 5% 정도 수준으로, 환경부는 보다 많은 유아들이 놀이·체험형 기후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유아 전용 기후환경교육 시설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김미애 국회의원실, 육아정책연구소, 한국환경연구원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8일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금한승**

**기조
강연**

미래세대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탄소중립과 돌봄

이 창 훈 원장
(한국환경연구원)



탄소중립과 돌봄

국회정책토론회

2023.05.18.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



11

• 미래세대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Content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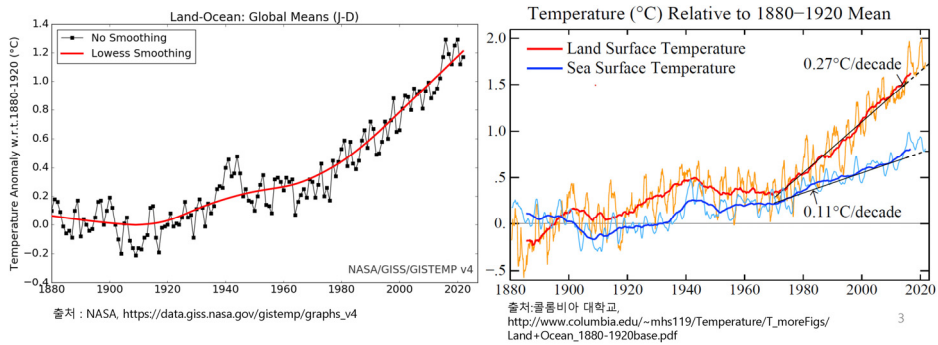
1. 기후위기 현황과 원인
2. 탄소중립 목표와 추진전략
3. 탄소중립의 사회적 수용성
4. 탄소중립과 돌봄

1. 기후위기 현황

2020 : 근대 기상관측이래 가장 더운 해. 산업화 이전 대비(1880-1920년 평균) 1.29°C 상승

2021/22 : 라니냐 현상 (0.06°C 하강요인)

2014~2022 :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9년



1. 기후위기 현황



미국 텍사스 한파 (2021)

- 겨울평균기온 10°C인 미국 텍사스 영하 18°C 북극발 한파
- 470만 가구 전기 및 난방 중단, 1,400만명 수도 공급 중단
- 210명 인명피해
- 230억 달러 피해(보험지급액)/ 최대 2,000억달러 이상 피해



서유럽 대홍수 (2021)

- 독일프랑스 벨기에 등 서유럽지역 100년만의 홍수 발생
- 독일 20만 가구 전기 공급 중단
- 240명 이상 인명피해
- 430억 달러 피해



호주올진 산불 (2019/20, 2022)

- 2019년 호주고온현상과가뭄으로 남한면적이상산불 다발적 발생
- 국내에서도 최근 올진 및 삼척 이례 적인 가뭄으로 역대 최장 기간 산불 발생, 여의도 면적 72 배의 임야 피해



국내 꿀벌 개체 급감 (2022)

- 기후변화로 꿀벌개체 70억 마리 감소(전국 개체수의 172%)
- 농작물 작황 영향으로 농작물 가격 상승
- 수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는 전세계 연간 165조 원 추정

출처 : Christian Aid, 2021, Counting the cost 2021 : A year of climate breakdown.

1. 기후위기 현황 : 피해의 글로벌 연결망

경제와 공급망의 세계화

■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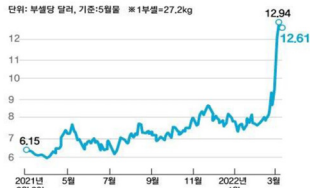
Rice, Lithium and Metals at Risk in China's Extreme Summer

- Sichuan province reels from worst drought since early 1960s
- Goldman says grain supplies are most at risk from heat wave

출처 : 블룸버그

급등한 밀 선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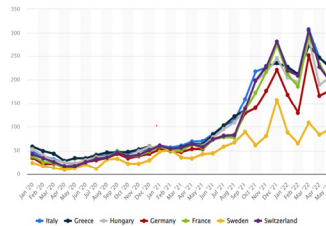
단위: 부셴당 달러, 기준=5월물 ※ 1부셴=27.2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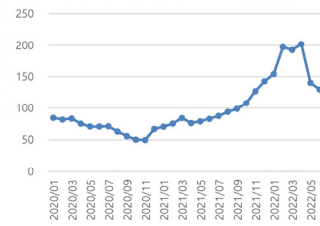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The JoongAng

유럽 월평균 전기도매가격(유로/MWh)



우리나라 월평균 전기도매가격(원/kWh)



1. 기후위기 현황 : 피해의 글로벌 연결망



파키스탄 몬순 대홍수(22.8)



파키스탄 폭염/홍수/다리붕괴(22.5)



히말라야 빙하 해빙 가속화
"수백년전보다 10배 빠른 속도"
(scientific reports, 2021)

히말라야 빙하가 모두 녹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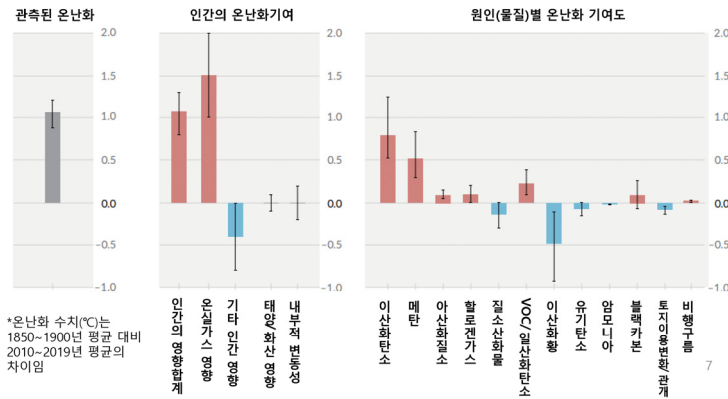
- 해수면 상승
- 인도, 파키스탄, 네팔, 중국 등 가뭄과 기근 (최대 14억 인구)
- 수자원 확보 전쟁?
- 대규모 기후난민 발생?
- 농산물 시장영향?
- 우리나라 영향?

기후위기가 글로벌 위기인 이유

- 히말라야 빙하가 모두 녹으면?
- 아프리카에 가뭄과 기근이 찾아오면?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가뭄이 오면?
- 기후난민이 대규모 발생하면?
- 홍수로 특정국가 산업생산이 붕괴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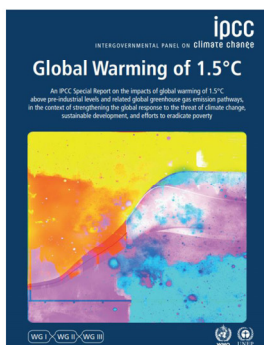
1. 기후위기 원인

기후변화의 원인은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이 명백 (출처 : IPCC, 2021, AR6 WG I, S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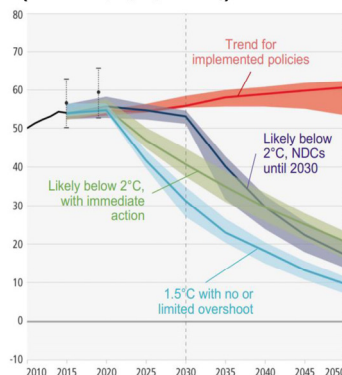


2. 탄소중립 목표

2050 탄소중립은
1.5°C 달성을 위한 필요조건
(IPCC 1.5도 보고서)



현재의 목표와 정책으로는 1.5°C 목표달성 불가능 :
(IPCC 6차 평가보고서)



정책시나리오별 온난화 전망

- '20년말까지 채택된 정책을 유지
→ 3.2°C 상승
- COP26('21) 이전 발표된 NDC와
탄소중립목표를 이행하는 경우
→ 2.8°C 상승

기후목표별 온실가스 감축률

(2019년 대비)

- 1.5°C : 43%(30), '50년대 초 탄소중립
- 2.0°C : 27%(30), '70년대 초 탄소중립

출처 : IPCC, 2021, AR6 WG III, Presentation Material.

2. 탄소중립 목표와 2030년 감축목표

2030년 감축목표(NDC) (단위 :백만tCO₂e)

구분	부문	기준연도 (‘18)	NDC(‘18)		NDC(‘21)		NDC(‘23)	
			배출량	감축률 (‘18년 대비)	배출량	감축률 (‘18년 대비)	배출량	감축률 (‘18년 대비)
배출	총배출량	727.6	584.6	19.7%	507.1	30.3%	512.0	29.6%
	순배출량	686.3	536.0	21.9%	436.6	36.4%	436.6	36.4%
	전환	269.6	192.7	28.5%	149.9	44.4%	145.9	45.9%
	산업	260.5	243.8	6.4%	222.6	14.5%	230.7	11.4%
	건물	52.1	41.9	19.5%	35.0	32.8%	35.0	32.8%
	수송	98.1	70.6	28.1%	61.0	37.8%	61.0	37.8%
	농축수산	24.7	19.4	21.6%	18.0	27.1%	18.0	27.1%
	폐기물	17.1	11.0	35.6%	9.1	46.8%	9.1	46.8%
	수소	-	-	-	7.6	-	8.4	-
	기타(탈루등)	5.6	5.2	-	3.9	-	3.9	-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2.1	-	-26.7	-	-26.7	-
	CCUS	-	-10.3	-	-10.3	-	-11.2	-
	국외 감축	-	-16.2	-	-33.5	-	-37.5	-

NDC의 성격: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목표

- 파리협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작성, 제출하는 목표로 미달성에 따른 처벌 조항은 없으나, 국제사회의 압박은 큼
- 목표를 바꿀 수는 있으나, 완화는 불가능하고 강화만 가능
- 목표달성 수단은 개별국가가 100% 자발적으로 선택가능
- 다만 2030년 까지 남은 시간을 감안할 때 이미 상용화된 기술만 적용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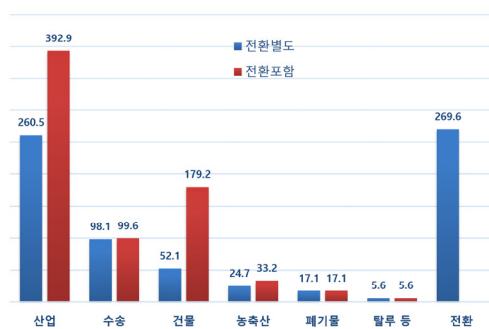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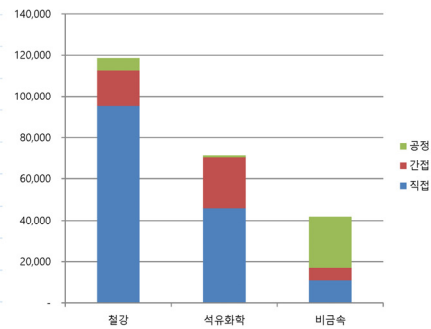
2. 탄소중립 추진전략 : 배출현황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2018, 백만톤) : 총배출량 727.6

고탄소 업종 온실가스 배출량 (2018, 천톤)



출처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자체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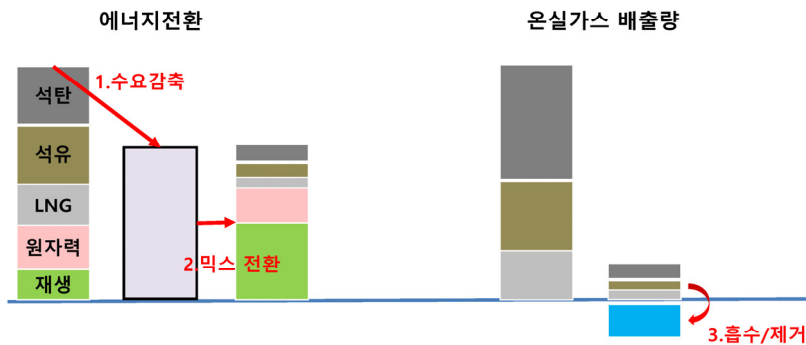


출처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주: 비금속 공정배출은 시멘트업종 배출임

10

2. 탄소중립 추진전략 : 개념

탄소중립 시나리오 =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 흡수/제거



11

16

2. 탄소중립 추진전략

1.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 모든 수요처에서(산업, 건물, 수송) 에너지의 최대한 사용 절감
- 탄소배출에 돈을 내게 하는 **탄소가격제** 강화
*탄소가격제 : 탄소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크게 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가 활용됨
- **전기요금 정상화** :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낮으면 전기사용자가 아닌 국민부담 증가
- 산업 : 탄소가격제도 강화
- 건물 : 기존건물 리모델링 지원 + 신축건물 에너지효율 규제 강화
- 수송 : 전기차 보조금 + 평균연비/온실가스배출규제 강화

2. 전기화 + 무탄소 에너지 공급

- 대표적 무탄소 에너지원인 태양광/풍력, 원자력은 주로 전기를 생산하므로, 수요의 **전기화** 및 **무탄소 에너지**(특히 재생에너지) 확대가 핵심
- **재생에너지: 영농형 태양광과 해상풍력** 중심 보급
- **재생에너지의 약점(간헐성) 극복 필요** : 하드웨어(전력망 및 저장장치) 투자 및 소프트웨어(도매 및 소매 전력시장 정상화) 마련



출처: 한국농동발전(2018),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영국, The Walney Extension, 695MW

12

2. 탄소중립 추진전략

3. 연료대체 및 온실가스 흡수원 확대

- 연료가 아니라 **원료로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철강, 석유화학 등), 생산공정에서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경우(시멘트 등), "전기화+재생에너지"가 대안이 될 수 없음
- **원료를 대체**하거나 **CCUS**(탄소포집, 이용, 저장기술), **자연기반 해법**, 또는 **마이너스 배출**을 통해 상쇄
- ***자연기반 해법** : 산림 흡수능력 강화(영급 구조 개선, 숲 가꾸기 등), 유휴토지 조림, 도시숲, 토양흡수원, 갯벌 복원, 바다숲 조성
- ***마이너스 배출** : Bio Energy with CCUS, Direct Air Capture

4. 비기술적 감축대안 적극 활용

- **순환경제** : 소재수요 감소 → 업종 배출 감소
단순한 완결성 추구를 넘어 순환의 속도와 순환의 양을 줄이는 노력 병행
- **식단변화** :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축산분야 해법 제시

5. 전환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

-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국민의 동의 및 수용성 강화 : **기후 및 환경교육 강화**
- 전환에 따른 **피해지역, 산업, 노동자들**을 위한 공정한 전환 프로그램

13



17

미래세대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3. 탄소중립의 사회적 수용성

탄소중립의 사회적 수용성 저해 요인 : **한국인의 유난한 돈 사랑과 내돈 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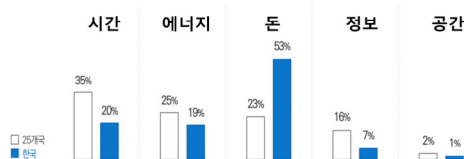
- 효과적인 정책인 탄소가격부과제도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강화) 도입 저항

왜 우리는 돈에 집착하는가?

- (타인과 비교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OECD Better Life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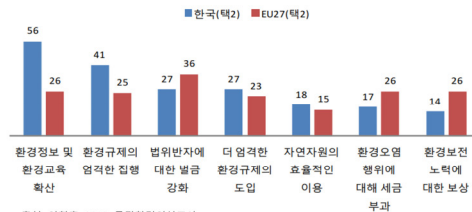
탄소중립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는 **사회자본의 축적**을 전제함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자산은 무엇입니까?”



출처: 칸타 글로벌 모니터(Global Monitor) 2020; 25개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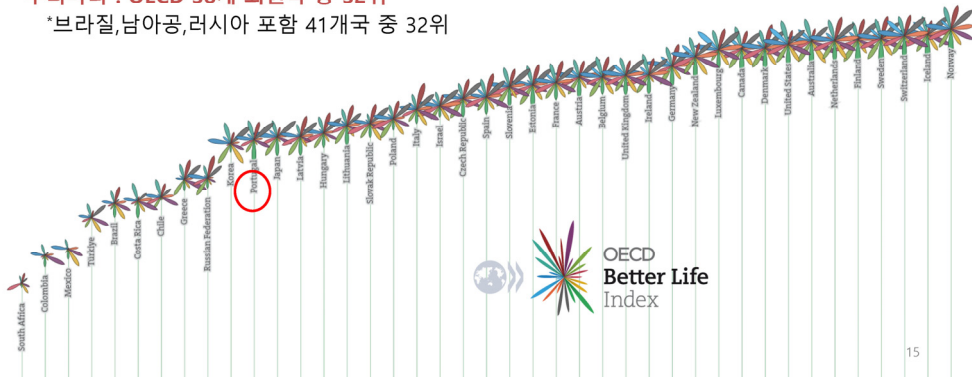
출처: 이창훈, 2012, 국민환경의식조사

3. 탄소중립의 사회적 수용성

행복은 성적(소득)순? - OECD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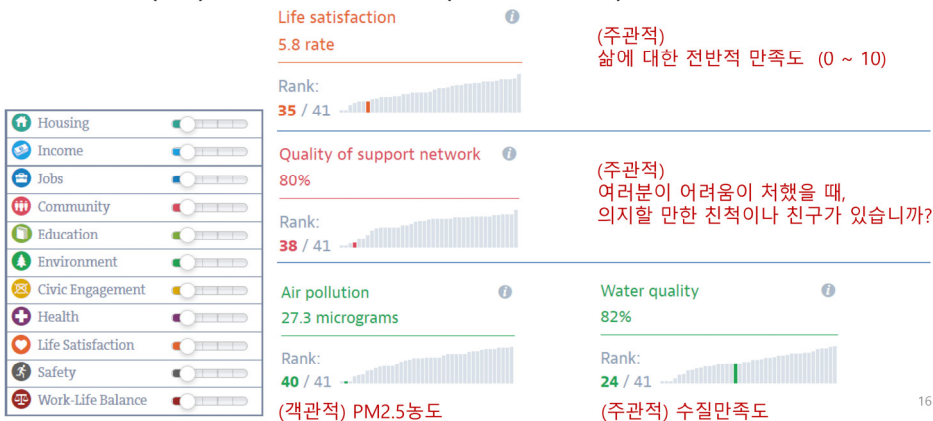
우리나라 : OECD 38개 회원국 중 32위

*브라질,남아공,러시아 포함 41개국 중 32위



3. 탄소중립의 사회적 수용성

행복은 성적(소득)순? - OECD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 11개의 지표를 통해 합산



4. 탄소중립과 돌봄

돌봄 윤리와 경제학 (Ethics and Economics of Care)

- 도구주의적 합리성 및 효용극대화 논리에서 벗어나, 좋은 삶 추구
- 좋은 삶/행복을 개인주의적 소비가 아니라, 개인간(interpersonal) 관계(공감, 책임, 협력, 신뢰 등)에서 찾음
- 엄마의 돌봄은 비상호적(non-reciprocal) 책임 행동으로, 유전적으로 더 먼 다른 생명에 대한 돌봄의 맹아

기후위기 육아교육은 좀 더 광범위한 “돌봄교육”의 틀 내에서 진행 필요

- 어린이를 돌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
- 주위의 친구를 돌보는 것에서 시작하여, 지구상의 다른 생명을 돌보는 것으로 확대
- 어린이들의 상호 돌봄으로, 사회적, 정서적 안정감이 쌓이면 다른 생명에 대한 관심과 돌봄의 가능성 증가

“좋은 친구가 되자!” 그러면, **내 친구가 자연의 좋은 친구가 된다!**

17



01

발표

미래세대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요구:

영유아 부모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를 중심으로

문 무 경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01

발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요구: 영유아부모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를 중심으로¹⁾

문 무 경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목차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2. 조사 개요
 - ▶ 영유아부모 조사 개요/ 교사 조사 개요
3. 영유아부모 조사 주요결과
 - ▶ 기후문제 인식/ 기후변화 경험과 양육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감수성 및 실천역량/기후변화 교육 및 정책 요구
4. 교사 조사 주요결과
 - ▶ 기후문제 인식/ 기후변화에 대한 감수성 및 실천역량/ 교사연수 경험/기후변화교육 실태/교육 과정과의 연계/ 기후변화 교육 및 정책 요구
5. 영유아 부모와 교사 조사결과 비교
6. 정책적 제언



23

미래세대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 국제사회는 기후위기로 인하여 취학 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촉구함.

- UNESCO(2021)는 향후 5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어린이 발달, 건강, 삶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함. 따라서 모든 분야에서 어린이 대상 정책 및 사업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린이 기후위기 지표(Children's Climate Risk Index)를 개발함.

1) 본 발제원은 경제사회인문연구회의 협동연구 「미래세대 영유아를 위한 기후적응 이행로드맵 연구」(정다운 외, 2023)의 일환으로 총괄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의 수탁과제 「영유아를 위한 기후적응 방안 연구」(문무경 외, 2023)로 수행된 조사결과임.

- 유니세프(2021)는 ‘for every child, a safe environment’를 발표하여 기후변화는 어린이의 모든 권리를 위협하여, 기후변화에 가장 책임이 없는 어린이가 기후변화 피해를 입게 되므로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것’을 강조함. 나아가, 유엔아동권리협약 12조에 근거하여 어린이를 변화의 주체로 인식하여 ‘어린이 중심’ 기후변화 전략과 대응 계획 수립을 강조함.

□ 최근 우리정부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이행체제에 기후위기 취약집단에 어린이를 포함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련 정책을 추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후변화 관련 정책 중 어린이, 특히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 대상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적응정책은 부재함

-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의 어린이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실재는 주로 환경교육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전개되어 오고 있으며, 기후변화교육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취학 전 영유아는 초등학생과 달리 공교육체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하며, 기후행동(climate action)의 기초를 마련하는 시기이므로 국가수준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매우 중요함.

□ 이에, 영유아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하여 1) 영유아 부모의 관련 인식을 파악하고, 2)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태와 지원 요구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조사 개요

가. 영유아 부모 설문조사 개요

□ 0~5세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 1,000여명 대상, 주민등록인구 현황자료에 근거하여 유아 연령별(0~5세), 지역 규모별(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로 비례 배분하여 표집함.

□ **응답자 특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영유아 부모는 총 1,012명

- 남성은 43.6%(441명), 여성은 56.4%(571명)
- 연령은 30대 이상이 56.0%(567명)>, 40대 이상 41.1%(416명)>20대 이상 2.9%(29명)

- 최종학력은 대졸(4년제)이 59.3%(600명)
- 취업 중인 응답자는 65.5%(663명), 직종별로는 사무종사자가 44.9%(355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18.6%(147명)
- 자녀연령은 5세 21.1%(241명), 4세 20.4%(206명), 3세 18.7%(189명), 2세 16.2%(164명), 1세 14.3%(145명), 0세 9.3%(94명)
-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자녀는 33.6%(340명), 유치원 재원중인 자녀는 56.2%(569명)

〈표 1〉 영유아 부모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계(수)	구분	계(수)
전체	100.0 (1,012)		
성별		맞벌이 여부	
남성	43.6 (441)	맞벌이	63.8 (646)
여성	56.4 (571)	외벌이	32.7 (331)
연령		기타	3.5 (35)
20대	2.9 (29)	배우자의 취업상태	
30대	56.0 (567)	취업	74.7 (746)
40대 이상	41.1 (416)	휴직	8.6 (86)
응답자 최종학력		학업	0.6 (6)
고졸 이하	10.0 (101)	구직중	4.0 (40)
대졸(3년제 이하)	17.7 (179)	미취업	12.0 (120)
대졸(4년제)	59.3 (600)	가구소득	
대학원 이상	13.0 (132)	300만원 미만	11.5 (116)
취업상태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1.6 (219)
취업	65.5 (663)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0.0 (202)
휴직	12.6 (128)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16.1 (163)
학업	0.7 (7)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11.9 (120)
구직 중	5.5 (56)	700만원 이상	19.0 (192)
미취업	15.6 (158)	자녀수	
직종		1명	45.0 (455)
관리자	7.5 (59)	2명 이상	55.0 (55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8.6 (147)	자녀연령1	
사무 종사자	44.9 (355)	0세	9.3 (94)
서비스 종사자	9.2 (73)	1세	14.3 (145)
판매종사자	4.4 (35)	2세	16.2 (16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4 (3)	3세	18.7 (189)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4.2 (33)	4세	20.4 (206)
장차/7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6 (13)	5세	21.1 (214)
단순노무 종사자	1.9 (15)	자녀연령2	
군인	0.1 (1)	영아	39.8 (403)
전업주부	7.2 (57)	유아	60.2 (609)
지역 구분		자녀 기관	
대도시	39.0 (395)	어린이집	33.6 (340)
중소도시	45.1 (456)	유치원	56.2 (569)
농어촌	15.9 (161)	기타 ¹⁾	10.2 (103)

주: 자녀 기관 구분 중, 기타는 반일제 이상 기관에 다니거나, 기관을 미 이용하는 경우임.



□ 설문 내용

- 설문 문항은 기후변화 인식, 기후변화 경험 및 양육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감수성, 실천 역량, 기후변화 교육 경험 및 정책 요구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표 2〉 영유아 부모 설문조사 내용

구분	문항 내용
기후변화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문제 관심도, 기후 변화 원인 인식, 기후변화문제 해결 방법 인식, 기후변화 문제 해결 기대 - 기후변화 문제 심각성, 기후변화 문제 중요도, 기후변화 관련 이미지 - 자녀세대가 입을 기후 피해,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
기후변화 경험 및 양육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피해 정도 - 주택 안전, 주택 상태 - 자녀 전반적인 건강 상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기후변화로 인한 자녀의 건강 상태(증상)
기후변화에 대한 감수성, 실천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감수성 - 환경 실천 행동 - 자녀와 함께 하는 기후변화 실천 행동 - 기후변화 대응 활동
기후변화 교육 및 정책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대상 기후변화 교육의 필요성, 기후변화 교육의 형태 - 유치원/어린이집 기후변화 교육 받은 경험, 프로그램 유형, 교육내용 만족도, 불만족 이유 - 유치원/어린이집 기후변화 관련 자료(안내문) 받은 경험, 활동 여부 - 거주 지역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주체 - 기후변화 정책개발의 중점, 기후변화 적응 정책 추진 바람직성, 적절한 적응정책 항목 - 주체별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가장 적합한 영유아기 기후환경교육의 주체

나. 교사(기관) 설문조사 개요

□ 총 1,000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기관유형별(유치원, 어린이집), 설립유형별(공사립), 지역규모별(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농어촌])로 할당하여 표집.

□ 응답자 특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관은 총 922명

- 유치원 421개원(공립 270개원, 사립 151개원), 어린이집 501개소(국공립 100개원, 국공립 이외 401개원)
- 기관 소재지별로 대도시 36.6%, 중소도시 34.5%, 농어촌 29.0%
- 교사경력별로 15년 이상 30.0%, 1-4년 이하 19.8%, 5-9년 이하 27.3%, 10년-14년 이하 22.8%, 1-4년 이하 19.8%

〈표 3〉 기관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전체 (수)	구분	전체 (수)
전체	100.0 (922)	전체	100.0 (922)
기관유형		지역구분	
유치원	45.7 (421)	대도시	36.6 (337)
어린이집	54.3 (501)	중소도시	34.5 (318)
		농어촌	29.0 (267)
설립유형		교사경력	
공립유치원	29.3 (270)	1-4년 이하	19.8 (183)
사립유치원	16.4 (151)	5-9년 이하	27.3 (252)
국공립어린이집	10.8 (100)	10-14년 이하	22.8 (210)
그 외 어린이집	43.5 (401)	15년 이상	30.0 (277)

□ 설문 내용

- 기후변화가 영유아의 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인식 및 실제 경험(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의 극한 기후현상에 따른 영유아 신체 및 정신 건강문제)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후변화 적응, 해결노력(예: 환경교육활동 등), 가장 우려되는 사항
- 지원 요구, 영유아 대상 향후 기후정책의 방향성 등



3. 영유아 부모조사 주요 결과

가. 기후변화 인식

□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관심도) 우리나라 기후변화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관심 있다는 응답이 74.7%로 과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평균 3.9점/5점 만점).

- 영아 부모보다 유아 부모가, 어린이집 부모보다 유치원 부모가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최종학력 별로는 대학원 이상 부모의 기후변화 문제 관심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부모의 기후변화 문제 관심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관심 없음	관심 없는 편	보통	관심 있는 편	매우 관심 있음	계(수)	평균
전체	0.0	3.1	22.2	58.3	16.4	100.0 (1,012)	3.9
자녀연령							
영아	0.0	4.7	23.6	54.6	17.1	100.0 (403)	3.8
유아	0.0	2.0	21.3	60.8	15.9	100.0 (609)	3.9
$\chi^2(df) / t$	8.294(3)*						-1.4
응답자 최종학력							
고졸 이하	0.0	1.0	40.6	46.5	11.9	100.0 (101)	3.7
대졸(3년제 이하)	0.0	3.4	23.5	54.7	18.4	100.0 (179)	3.9
대졸(4년제)	0.0	2.8	20.5	60.8	15.8	100.0 (600)	3.9
대학원 이상	0.0	5.3	14.4	60.6	19.7	100.0 (132)	3.9
$\chi^2(df) / F$	29.895(9)***						2.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59.1%(아는 편 54.4%, 매우 잘
알 4.7%), 보통이 35.0%로 나타남(평균 3.6점/5점 만점).

- 가구 소득별로는 7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최종학력 별로는 대학원 이상인
경우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 유의하게 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부모의 기후변화 원인 인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모름	모르는 편	보통	아는 편	매우 잘 알고 있음	계(수)	평균
전체	0.0	5.8	35.0	54.4	4.7	100.0 (1,012)	3.6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0.0	10.3	39.7	48.3	1.7	100.0 (116)	3.4
300~400만원	0.0	5.0	37.4	52.1	5.5	100.0 (219)	3.6
400~500만원	0.0	8.4	39.6	46.5	5.4	100.0 (202)	3.5
500~600만원	0.0	3.7	31.3	61.3	3.7	100.0 (163)	3.7
600~700만원	0.0	2.5	34.2	58.3	5.0	100.0 (120)	3.7
700만원 이상	0.0	5.2	28.1	60.9	5.7	100.0 (192)	3.7
$\chi^2(df) / F$	25.991(15)*						3.6**(a)
응답자 최종학력							
고졸 이하	0.0	13.9	46.5	38.6	1.0	100.0 (101)	3.3
대졸(3년제 이하)	0.0	7.8	40.8	44.7	6.7	100.0 (179)	3.5
대졸(4년제)	0.0	4.7	33.3	58.7	3.3	100.0 (600)	3.6
대학원 이상	0.0	2.3	25.8	60.6	11.4	100.0 (132)	3.8
$\chi^2(df) / F$	55.725(9)***						14.0***(a)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기후변화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49.1%로 과반이 넘지 않으며(아는 편 45.1%, 매우 잘 앎 4.0%), 약 10%의 부모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모른다고 응답.

〈표 6〉 부모의 기후변화문제 해결 방법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모름	모르는 편	보통	아는 편	매우 잘 앎	계(수)	평균
전체	0.2	9.3	41.5	45.1	4.0	100.0 (1,012)	3.4
응답자 최종학력							
고졸 이하	1.0	13.9	48.5	33.7	3.0	100.0 (101)	3.2
대졸(3년제 이하)	0.0	8.4	47.5	39.7	4.5	100.0 (179)	3.4
대졸(4년제)	0.2	9.0	40.8	47.0	3.0	100.0 (600)	3.4
대학원 이상	0.0	8.3	31.1	52.3	8.3	100.0 (132)	3.6
$\chi^2(df) / F$	26.990(12)**						5.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기후문제 해결 기대) 사람들의 노력으로 기후변화문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61.8%,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19.7%임.

- 40대 이상 부모가, 중소도시 거주부모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음.

〈표 7〉 부모의 기후변화문제 해결 기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해결하지 못할 것	별로 해결하지 못할 것	보통	약간 해결할 수 있을 것	상당한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계(수)	평균
전체	1.2	18.5	18.5	48.9	12.9	100.0 (1,012)	3.5
응답자 연령							
20대	6.9	24.1	27.6	24.1	17.2	100.0 (29)	3.2
30대	1.4	18.0	20.3	47.4	12.9	100.0 (567)	3.5
40대 이상	0.5	18.8	15.4	52.6	12.7	100.0 (416)	3.6
$\chi^2(df) / F$	20.513(8)**						2.2
지역구분							
대도시	0.3	18.5	21.5	48.1	11.6	100.0 (395)	3.5
중소도시	2.0	18.6	17.5	50.7	11.2	100.0 (456)	3.5
농어촌	1.2	18.0	13.7	46.0	21.1	100.0 (161)	3.7
$\chi^2(df) / F$	20.064(8)*						2.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우리나라 기후문제의 심각 정도)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81.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심각한 편 60.4%, 매우 심각 21.3%) (평균 4.0점/5점 만점).
-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음.

〈표 8〉 우리나라 기후변화문제 심각 정도에 대한 부모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음	심각하지 않은 편	보통	심각한 편	매우 심각	계(수)	평균
전체	0.0	1.9	16.4	60.4	21.3	100.0 (1,012)	4.0
성별							
남성	0.0	2.0	19.7	59.6	18.6	100.0 (441)	3.9
여성	0.0	1.8	13.8	60.9	23.5	100.0 (571)	4.1
$\chi^2(df) / t$	8.218(3)*						-2.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기후변화문제의 중요성) 중요하다라는 응답이 81.8%(중요한편 51.3%, 매우 중요 30.5%)로 높게 나타남.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86.5%(중요한 편 55.9%, 매우 중요 30.6%(평균 4.2점/5점 만점) 더 높게 중요하다고 응답.

〈표 9〉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도에 대한 부모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편	보통	중요한 편	매우 중요	계(수)	평균
전체	0.2	2.3	15.7	51.3	30.5	100.0 (1,012)	4.1
성별							
남성	0.5	4.3	19.5	45.4	30.4	100.0 (441)	4.0
여성	0.0	0.7	12.8	55.9	30.6	100.0 (571)	4.2
$\chi^2(df) / t$	29.356(4)***						-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 (기후변화로 인한 자녀세대 피해 정도) 자녀세대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응답이 93.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평균 4.4점/5점 만점).
- 지역의 규모가 작을수록 매우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10〉 기후변화로 인한 자녀세대 피해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피해 입지 않을 것	거의 피해 입지 않을 것	보통	다소 피해 입을 것	매우 큰 피해 입을 것	계(수)	평균
전체	0.0	0.7	5.7	46.5	47.0	100.0 (1,012)	4.4
지역구분							
대도시	0.0	0.3	8.6	45.6	45.6	100.0 (395)	4.4
중소도시	0.0	1.3	3.5	47.4	47.8	100.0 (456)	4.4
농어촌	0.0	0.0	5.0	46.6	48.4	100.0 (161)	4.4
$\chi^2(df) / F$	15.028(6)*						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세대의 피해영역) 기후변화로 인해 자녀를 비롯한 미래세대가 향후 가장 크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은 ‘건강’(83.4%)이 가장 높음. 그 다음으로 ‘고용 및 경제활동’ 7.0%, ‘주거’ 5.7%, ‘교육’ 2.3%, ‘문화활동’ 1.1% 순임.
-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을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건강 다음으로 가장 높게 피해 입을 영역을 20대 응답자의 경우 ‘교육’(10.3%), 30대의 경우 ‘주거’(7.1%), 40대의 경우 ‘고용 및 경제활동’(8.9%)으로 응답.

〈표 11〉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세대의 피해영역

단위: %(명)

구분	건강	교육	고용 및 경제활동	주거	문화활동	기타	계(수)
전체	83.4	2.3	7.0	5.7	1.1	0.5	100.0 (1,012)
응답자 연령							
20대	75.9	10.3	6.9	6.9	0.0	0.0	100.0 (29)
30대	84.0	1.9	5.6	7.1	0.7	0.7	100.0 (567)
40대 이상	83.2	2.2	8.9	3.8	1.7	0.2	100.0 (416)
$\chi^2(df)$	20.459(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나. 기후변화 경험과 양육 환경

- (최근 3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여부) 기후변화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61.7%, 없다는 비율이 38.3%.
- 자녀의 연령이 2세와 3세의 경우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7.7%로 가장 높았으며, 1세의 경우는 51.7%로 가장 낮음.



〈표 12〉 최근 3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여부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전체	61.7	38.3	100.0 (1,012)
성별			
남성	54.2	45.8	100.0 (441)
여성	67.4	32.6	100.0 (571)
$\chi^2(df)$	18.424(1)***		
자녀 연령2			
0세	59.6	40.4	100.0 (94)
1세	51.7	48.3	100.0 (145)
2세	67.7	32.3	100.0 (164)
3세	67.7	32.3	100.0 (189)
4세	57.3	42.7	100.0 (206)
5세	63.6	36.4	100.0 (214)
$\chi^2(df)$	13.68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 〈피해유형별 피해정도〉 최근 3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부모 624명을 대상으로, 피해 유형별(더위, 한파, 홍수, 가뭄, 화재, 미세먼지 등) 피해 정도를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가 평균 4.6점으로 가장 높음. 그 다음으로 ‘더위(이상 고온)’ 3.8점, ‘한파(이상 저온, 냉해 등)’ 3.6점, ‘가뭄’ 3.5점, ‘화재’ 3.3점, ‘홍수’ 3.2점 순임.

〈표 13〉 피해유형별 피해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1+2	전혀 심각하지 않음	심각하지 않음	보통임	심각함	매우 심각함	해당 없음	4+5	계(수)	평균
		1	2	3	4	5				
1. 더위 (이상 고온)	3.5	0.3	3.2	22.0	57.5	13.0	4.0	70.5	100.0 (624)	3.8
2. 한파 (이상 저온, 냉해 등)	6.9	0.8	6.1	35.1	44.4	8.3	5.3	52.7	100.0 (624)	3.6
3. 홍수	16.6	3.0	13.6	34.3	25.0	7.2	16.8	32.2	100.0 (624)	3.2
4. 가뭄	12.2	2.9	9.3	26.9	33.7	11.4	15.9	45.1	100.0 (624)	3.5
5. 화재	15.9	2.4	13.5	29.2	27.1	8.5	19.4	35.6	100.0 (624)	3.3
6. 미세먼지	1.3	0.2	1.1	6.6	27.2	64.6	0.3	91.8	100.0 (624)	4.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기후변화로 인한 거주주택의 안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해 45.0%가 보통으로 응답, 그 다음으로 안전한 편이라는 응답이 31.6%,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23.4%임.

-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가구소득별 700만원 이상인 경우,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 현재 거주 주택이 기후 변화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지함.

〈표 14〉 거주 주택의 기후변화로 인한 안전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안전 하지 않음	안전하지 않은 편	보통	안전한 편	매우 안전	계(수)	평균
전체	2.2	21.2	45.0	30.2	1.4	100.0 (1,012)	3.1
성별							
남성	1.8	16.3	43.5	36.3	2.0	100.0 (441)	3.2
여성	2.5	25.0	46.1	25.6	0.9	100.0 (571)	3.0
$\chi^2(df) / t$	21.602(4)***						4.5***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4	23.3	44.0	28.4	0.9	100.0 (116)	3.0
300~400만원	1.4	24.2	50.7	22.4	1.4	100.0 (219)	3.0
400~500만원	2.5	23.3	40.1	34.2	0.0	100.0 (202)	3.1
500~600만원	2.5	22.7	42.3	31.3	1.2	100.0 (163)	3.1
600~700만원	2.5	14.2	58.3	23.3	1.7	100.0 (120)	3.1
700만원 이상	1.6	17.7	38.0	39.6	3.1	100.0 (192)	3.3
$\chi^2(df) / F$	37.907(20)**						2.6*(a)
응답자 최종학력							
고졸 이하	1.0	22.8	54.5	20.8	1.0	100.0 (101)	3.0
대졸(3년제 이하)	3.4	25.7	48.0	21.8	1.1	100.0 (179)	2.9
대졸(4년제)	1.7	20.2	43.3	33.7	1.2	100.0 (600)	3.1
대학원 이상	3.8	18.9	40.9	33.3	3.0	100.0 (132)	3.1
$\chi^2(df) / F$	22.720(12)*						3.8*(a)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기후변화로 자녀건강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51.0%(매우 영향 미침 9.9%, 약간 영향 미침 50.2%)로 과반 이상으로 나타남.

- 자녀 연령별로는 3세 부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경우, 기후변화가 자녀의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15〉 기후변화가 자녀건강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영향 미치지 않음	별로 영향 미치지 않음	보통	약간 영향 미침	매우 영향 미침	계(수)	평균
전체	0.5	10.4	29.1	50.2	9.9	100.0 (1,012)	3.6
성별							
남성	0.5	14.5	29.3	45.4	10.4	100.0 (441)	3.5
여성	0.5	7.2	28.9	53.9	9.5	100.0 (571)	3.6
$\chi^2(df) / t$	16.825(4)**						-2.6**
자녀 연령2							
0세	3.2	10.6	30.9	48.9	6.4	100.0 (94)	3.4
1세	0.0	15.2	26.9	49.0	9.0	100.0 (145)	3.5
2세	0.0	7.9	31.1	50.6	10.4	100.0 (164)	3.6
3세	0.5	6.9	24.3	56.6	11.6	100.0 (189)	3.7
4세	0.5	8.3	34.0	47.6	9.7	100.0 (206)	3.6
5세	0.0	14.0	27.6	48.1	10.3	100.0 (214)	3.5
$\chi^2(df) / F$	34.417(20)*						2.0(a)
기관 구분							
유치원	0.0	10.6	28.2	50.9	10.3	100.0 (340)	3.6
어린이집	0.5	9.3	27.9	51.7	10.5	100.0 (569)	3.6
기타	1.9	15.5	37.9	39.8	4.9	100.0 (103)	3.3
$\chi^2(df) / t$	17.846(8)*						7.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기후변화가 자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부모 6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후 변화로 인해 나빠진 영유아 자녀의 건강은 호흡기질환이 78.6% > 피부질환 17.9% > 소화기질환과 기타 1.3% > 신체운동 장애 0.8% 순으로 나타남.

- 대도시에서 피부질환의 비율이 23.5%로 중소도시와 농어촌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남.

〈표 16〉 기후변화로 인해 나빠진 자녀 증상

단위: %(명)

구분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소화기질환	신체운동 장애	기타	계(수)
전체	78.6	17.9	1.3	0.8	1.3	100.0 (608)
자녀 연령2						
0세	69.2	23.1	5.8	0.0	1.9	100.0 (52)
1세	79.8	17.9	0.0	0.0	2.4	100.0 (84)
2세	80.0	17.0	1.0	2.0	0.0	100.0 (100)
3세	84.5	11.6	0.0	1.6	2.3	100.0 (129)
4세	83.1	13.6	1.7	0.8	0.8	100.0 (118)
5세	70.4	27.2	1.6	0.0	0.8	100.0 (125)
$\chi^2(df)$	32.703(20)*					
지역구분						
대도시	70.9	23.5	1.7	0.9	3.0	100.0 (234)
중소도시	84.0	14.2	0.7	0.7	0.4	100.0 (268)
농어촌	82.1	15.1	1.9	0.9	0.0	100.0 (106)
$\chi^2(df)$	18.959(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다. 기후변화에 대한 감수성 및 실천역량

□ **(기후변화 감수성)** 영유아 부모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감수성을 조사한 결과, ‘다음 세대를 위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평균 4.3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나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평균 3.5점), ‘나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기후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평균 3.5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하여 낮게 나타남.

〈표 17〉 기후변화에 대한 감수성

단위: %(명), 점

구분	부정 응답 1+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긍정 응답 4+5	계(수)	평균
		1	2		4	5			
1. 나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5.1	0.7	4.4	30.0	59.0	5.8	64.8	100.0 (1,012)	3.6
2. 나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기후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	9.7	0.8	8.9	37.4	46.6	6.3	52.9	100.0 (1,012)	3.5
3. 나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9.0	0.7	8.3	36.8	49.3	4.9	54.2	100.0 (1,012)	3.5
4. 다른 사람이 캔, 플라스틱, 병 등의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	5.0	0.5	4.5	14.6	57.7	22.6	80.3	100.0 (1,012)	4.0
5. 가까운 미래에 기후변화로 인해 나와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스럽다	3.2	0.4	2.8	19.3	51.9	25.7	77.6	100.0 (1,012)	4.0
6. 친환경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4.8	0.6	4.2	15.2	57.3	22.6	79.9	100.0 (1,012)	4.0
7. 내가 노력하면 기후 문제를 개선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다	9.9	1.5	8.4	31.0	47.0	12.1	59.1	100.0 (1,012)	3.6
8. 나의 생활 습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3.5	0.2	3.3	19.2	58.4	19.0	77.4	100.0 (1,012)	3.9
9. 다음 세대를 위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1.4	0.4	1.0	12.1	45.6	41.0	86.6	100.0 (1,012)	4.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환경을 위한 행동실천)을 살펴보면, ‘산이나 공원 등 자연공간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의 긍정응답률은 84.0%이고, 평균 4.2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방에서 나갈 때 전기제품(조명, 컴퓨터 등)을 모두 끈다’(긍정 응답률 78.4%)는 평균 4.2점(5점 만점), ‘청구서나 영수증 등을 전자(모바일) 형식으로 제공 받는다’(긍정응답률 65.3%)는 평균 3.7점(5점 만점)으로 나타남.
- 반면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긍정응답률 36.7%)’ 항목은 평균 3.1점(5점 만점)으로 가장 낮음.

〈표 18〉 환경을 위한 행동 실천

단위: %(명), 점

구분	부정 응답 1+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3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긍정 응답 4+5	계(수)	평균
		1	2		4	5			
1. 냉난방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적정 실내온도(여름 26도 이상, 겨울 20도 이하)를 유지한다	16.3	1.2	15.1	24.6	43.3	15.8	59.1	100.0 (1,012)	3.6
2. 방에서 나갈 때 전기제품(조명, 컴퓨터 등)을 모두 끈다	6.3	0.5	5.8	15.3	43.0	35.4	78.4	100.0 (1,012)	4.1
3. 물건을 살 때 친환경마크(저탄소 제품, 친환경 인증 등)가 표기된 제품을 구매한다	19.5	2.8	16.7	44.9	30.5	5.1	35.6	100.0 (1,012)	3.2
4. 과대 포장인 제품은 사지 않는다	12.2	1.8	10.4	42.6	39.0	6.2	45.2	100.0 (1,012)	3.4
5.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33.3	5.8	27.5	30.0	27.4	9.3	36.7	100.0 (1,012)	3.1
6. 텀블러나 장바구니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용품을 가지고 다닌다	12.7	2.2	10.5	26.3	43.7	17.4	61.1	100.0 (1,012)	3.6
7. 청구서나 영수증 등을 전자(모바일) 형식으로 제공 받는다	9.4	1.7	7.7	25.3	49.7	15.6	65.3	100.0 (1,012)	3.7
8. 산이나 공원 등 자연공간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1.9	0.6	1.3	14.1	45.4	38.6	84.0	100.0 (1,012)	4.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자녀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실천 및 대응 활동)

- 자녀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기후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지에 대한 기후변화 실천 역량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함.
- ‘자녀가 기후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 나에게도 중요하다’ 항목의 긍정 응답률이 6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3.7점(5점 만점).
- 반면 ‘나는 평소 자녀와 기후변화나 기후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긍정응답률

29.9%)에 대한 응답은 평균 2.9점(5점 만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19〉 자녀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실천역량

단위: %(명), 점

구분	부정 응답 1+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긍정 응답 4+5	계(수)	평균
		1	2						
1. 나는 평소 자녀와 기후변화나 기후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	29.8	8.0	21.8	40.3	27.1	2.8	29.9	100.0 (1,012)	2.9
2. 나는 기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와 의논하고 함께 실천한 적이 있다(예를 들어, 일회용품 안 쓰기, 대중교통 이용이나 걷기, 에너지 절약 등)	21.4	6.4	15.0	30.9	40.6	7.0	47.6	100.0 (1,012)	3.3
3. 나는 평소 자녀에게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할 것을 권유한다	15.7	4.5	11.2	31.6	44.2	8.5	52.7	100.0 (1,012)	3.4
4. 자녀가 기후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 나에게도 중요하다	6.6	1.8	4.8	26.8	52.8	13.8	66.6	100.0 (1,012)	3.7
5. 자녀는 기후변화(환경 파괴 등)에 대해 얘기할 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편이다	21.2	6.9	14.3	33.8	37.1	7.9	45.0	100.0 (1,012)	3.2

□ 영유아 부모에게 기후변화 대응 활동 여부와 활동 시 자녀와 함께 하였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후변화 대응 활동 중, ‘기후변화 관련 가족 간 의사소통’의 활동이 5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후변화 관련 시청각 및 인터넷 자료(유튜브, SNS 등)’이 51.2%로 높음. 반면 ‘기후변화 관련 봉사활동’은 13.8%로 활동 참여도가 가장 낮음.

- 자녀와 함께 활동한 경우는 ‘기후변화 관련 체험학습(환경교육관, 생태체험관 등)’이 90.0%로 가장 높았고, ‘기후변화 관련 책 독서’ 84.0% 순임.

〈표 20〉 기후변화 대응 활동

구분	부모의 활동 여부		계(수)	(부모활동 있을 시) 자녀와 함께 활동 여부		계(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 기후변화 관련 체험학습(환경교육관, 생태체험관 등)	43.7	56.3	100.0 (1,012)	90.0	10.0	100.0 (442)
2. 기후변화 관련 봉사활동	13.8	86.2	100.0 (1,012)	67.9	32.1	100.0 (140)
3. 기후변화 관련 가족 간 의사소통	53.9	46.1	100.0 (1,012)	82.2	17.8	100.0 (545)
4. 기후변화 관련 시청각 및 인터넷 자료(유튜브, SNS 등)	51.2	48.8	100.0 (1,012)	72.2	27.8	100.0 (518)
5. 기후변화 관련 책 독서	40.0	60.0	100.0 (1,012)	84.0	16.0	100.0 (405)



라. 기후변화 교육 및 정책 요구

□ **(영유아기 국가수준 기후변화교육의 필요성)** 국가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어릴 때부터 교육할 필요하다는 응답은 85.0%(필요 37.2%, 매우 필요 47.8%)로 높게 나타남(평균 4.3점/5점 만점).

〈표 21〉 국가의 영유아 대상 기후변화 교육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필요 없음	별로 필요 없음	보통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전체	0.2	2.8	12.1	37.2	47.8	100.0 (1,012)	4.3
성별							
남성	0.5	4.3	15.6	35.8	43.8	100.0 (441)	4.2
여성	0.0	1.6	9.3	38.2	51.0	100.0 (571)	4.4
$\chi^2(df) / t$	20.730(4)***						-3.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필요한 기후변화교육의 유형)** 영유아 대상 기후변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982명을 대상으로, 어떤 기후변화 교육의 유형이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일상생활 속 체험활동’이 8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놀이활동’ 51.6%,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연계 프로그램’ 28.5%, ‘지식전달 교육’ 24.1%, ‘영상매체 활용(유튜브 등)’이 10.1% 순으로 나타남. 영유아 부모는 매체를 활용한 교육보다는 체험을 통해 터득하는 교육을 선호함을 알 수 있음.

〈표 22〉 기후변화교육 형태 (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지식전달 교육	일상생활 속 체험활동	놀이활동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연계 프로그램	영상매체 활용 (유튜브 등)	계(수)
전체	24.1	85.6	51.6	28.5	10.1	(982)
응답자 연령						
20대	17.9	82.1	50.0	35.7	14.3	(28)
30대	23.7	85.4	55.3	27.2	8.4	(548)
40대 이상	25.1	86.2	46.8	29.8	12.1	(406)
자녀연령						
영아	23.0	83.7	54.8	31.5	7.0	(387)
유아	24.9	86.9	49.6	26.6	12.1	(595)
기관 구분						
유치원	22.2	87.1	48.5	27.5	14.7	(334)
어린이집	25.2	85.7	53.0	28.1	8.0	(551)
기타	24.7	80.4	54.6	34.0	6.2	(97)

구분	지식전달 교육	일상생활 속 체험활동	놀이활동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연계 프로그램	영상매체 활용 (유튜브 등)	계(수)
지역구분						
대도시	23.8	85.9	53.7	28.5	8.1	(382)
중소도시	24.3	86.1	50.6	28.8	10.3	(445)
농어촌	24.5	83.9	49.7	27.7	14.2	(155)
응답자 최종학력						
고졸 이하	25.3	84.2	47.4	33.7	9.5	(95)
대졸(3년제 이하)	24.6	78.9	57.1	27.4	12.0	(175)
대졸(4년제)	23.5	87.8	51.0	27.9	9.8	(584)
대학원 이상	25.8	85.9	50.0	28.9	9.4	(12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기후환경교육 경험)**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909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기관에서 자녀가 기후변화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9.0%,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26.0%, 모른다는 응답은 25.0%임.

- 영아보다는 유아 부모가, 어린이집보다 유치원 이용 부모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부모의 경우에 교육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표 23〉 유치원, 어린이집에서의 기후변화, 환경보호 관련 교육 경험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모른다	계(수)
전체	49.0	26.0	25.0	100.0 (909)
성별				
남성	39.1	30.6	30.3	100.0 (402)
여성	56.8	22.5	20.7	100.0 (507)
$\chi^2(df)$	28.430(2)***			
자녀연령1				
영아	32.0	39.5	28.5	100.0 (319)
유아	58.1	18.8	23.1	100.0 (590)
$\chi^2(df)$	65.410(2)***			
기관 구분				
유치원	58.2	17.9	23.8	100.0 (340)
어린이집	43.4	30.9	25.7	100.0 (569)
$\chi^2(df)$	23.618(2)***			
지역구분				
대도시	47.5	31.5	21.0	100.0 (343)
중소도시	50.5	22.6	26.9	100.0 (416)
농어촌	48.0	23.3	28.7	100.0 (150)
$\chi^2(df)$	10.217(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 (부모가 경험한 기후환경교육 프로그램)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기후변화, 환경보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445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경험했던 모든 프로그램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체험활동'이 6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놀이활동'(54.8%), '지식전달 교육'(49.7%)순으로 나타남.

- 한편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 연계 프로그램'(18.0%)은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 기후변화, 환경보호 교육 중 가정 연계 부모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태임을 알 수 있음.

〈표 24〉 프로그램 유형(복수 응답)

단위: %(명)

구분	지식전달 교육	체험활동	놀이 활동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연계 프로그램	영상 매체 활용 (유튜브 등)	기타	계(수)
전체	49.7	60.2	54.8	18.0	21.1	0.7	(445)
기관 구분							
유치원	47.5	57.1	56.6	17.2	21.7	0.5	(198)
어린이집	51.4	62.8	53.4	18.6	20.6	0.8	(247)
지역구분							
대도시	47.2	60.1	57.7	16.6	19.0	1.2	(163)
중소도시	51.0	61.4	52.4	17.1	23.8	0.5	(210)
농어촌	51.4	56.9	55.6	23.6	18.1	0.0	(7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후변화, 환경보호 관련 교육내용에 대한 부모 만족도)

- 만족한다는 응답은 53.5%〈보통 42.5% (3.5점/5점 만점)〉

-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인 부모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음.

〈표 25〉 기후변화 교육내용에 대한 부모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전체	0.2	3.8	42.5	48.3	5.2	100.0 (445)	3.5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0.0	9.8	31.4	51.0	7.8	100.0 (51)	3.6
300~400만원	0.0	2.1	42.7	49.0	6.3	100.0 (96)	3.6
400~500만원	0.0	0.0	50.0	41.9	8.1	100.0 (86)	3.6
500~600만원	0.0	2.7	45.9	51.4	0.0	100.0 (74)	3.5
600~700만원	1.7	3.3	28.3	61.7	5.0	100.0 (60)	3.7
700만원 이상	0.0	7.7	48.7	39.7	3.8	100.0 (78)	3.4
$\chi^2(df) / F$			35.809(20)*				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부모의 불만족 이유) 전반적인 교육 내용에 대해 불만족한 부모의 경우(18명), ‘지나치게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이므로’, ‘기후변화(또는 환경보호)와 관련이 없어 보여서’의 응답이 각각 27.8%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영유아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내용이었어서’, ‘재미와 흥미가 없어 보여서’는 응답이 각각 22.2% 임.

□ (기후환경 관련 정보 제공받은 여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부터 기후변화나 환경보호 관련 자료, 안내문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51.8%로 나타남.

- 어머니 응답자와 유아 부모, 자녀 연령이 높은 부모일수록, 유치원을 이용하는 부모일수록 안내문을 받아본 적 있다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높음.

〈표 26〉 유치원/어린이집으로부터 기후변화/환경보호 관련 자료, 안내문 제공받은 부모 경험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전체	48.2	51.8	100.0 (932)
성별			
남성	38.3	61.7	100.0 (413)
여성	56.1	43.9	100.0 (519)
$\chi^2(df)$	29.228(1)***		
자녀연령1			
영아	35.9	64.1	100.0 (326)
유아	54.8	45.2	100.0 (606)
$\chi^2(df)$	30.314(1)***		
기관 구분			
유치원	55.6	44.4	100.0 (340)
어린이집	43.6	56.4	100.0 (569)
기타	52.2	47.8	100.0 (23)
$\chi^2(df)$	12.432(2)**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3.7	46.3	100.0 (95)
300~400만원	49.3	50.7	100.0 (203)
400~500만원	45.7	54.3	100.0 (188)
500~600만원	50.0	50.0	100.0 (154)
600~700만원	53.6	46.4	100.0 (110)
700만원 이상	41.8	58.2	100.0 (182)
$\chi^2(df)$	6.217(5)		
지역구분			
대도시	45.2	54.8	100.0 (354)
중소도시	49.6	50.4	100.0 (427)
농어촌	51.0	49.0	100.0 (151)
$\chi^2(df)$	2.109(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기후변화 관련 안내문, 자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부모 449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함께 읽어보거나 안내에 따라 활동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함께 읽어보고 설명에 따라 행동’한 부모가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녀에게 읽어 주기만 한’ 부모는 22.9%, ‘본인(부모)만 읽고 자녀에게 알려주지 않은’ 부모는 17.8%, ‘읽어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부모는 1.8%로 나타남.

〈표 27〉 기후변화 관련 안내문, 자료에 따라 자녀와 함께 활동한 경험

단위: %(명)

구분	함께 읽어보고 설명에 따라 행동하였음	자녀에게 읽어 주기만 하였음	본인(부모)만 읽고 자녀에게 알려주지 않았음	읽어보지 않았음	계(수)
전체	57.5	22.9	17.8	1.8	100.0 (449)
성별					
남성	58.9	29.7	8.2	3.2	100.0 (158)
여성	56.7	19.2	23.0	1.0	100.0 (291)
$\chi^2(df)$	20.206(3)***				
응답자 연령					
20대	14.3	35.7	50.0	0.0	100.0 (14)
30대	57.3	20.8	20.4	1.6	100.0 (255)
40대 이상	61.1	25.0	11.7	2.2	100.0 (180)
$\chi^2(df)$	20.226(6)**				
자녀연령1					
영아	46.2	21.4	30.8	1.7	100.0 (117)
유아	61.4	23.5	13.3	1.8	100.0 (332)
$\chi^2(df)$	18.593(3)***				
기관 구분					
유치원	65.6	20.6	12.2	1.6	100.0 (189)
어린이집	51.2	23.8	23.0	2.0	100.0 (248)
기타	58.3	41.7	0.0	0.0	100.0 (12)
$\chi^2(df)$	15.790(6)*				
지역구분					
대도시	55.6	24.4	17.5	2.5	100.0 (160)
중소도시	57.5	22.6	18.4	1.4	100.0 (212)
농어촌	61.0	20.8	16.9	1.3	100.0 (77)
$\chi^2(df)$	1.385(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유치원/어린이집을 제외하고 기후변화(또는 자연보호)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다는 응답은 20.4%, 없다는 응답은 18.9%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0.8%로 높게 응답됨.

〈표 28〉 기후변화(또는 자연보호)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 유무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잘 모름	계(수)
전체	20.4	18.9	60.8	100.0 (1,012)
자녀연령1				
영아	15.4	19.6	65.0	100.0 (403)
유아	23.6	18.4	58.0	100.0 (609)
$\chi^2(df)$	10.301(2)**			
기관 구분				
유치원	24.1	18.5	57.4	100.0 (340)
어린이집	19.5	20.2	60.3	100.0 (569)
기타	12.6	12.6	74.8	100.0 (103)
$\chi^2(df)$	12.277(4)*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1.6	17.2	61.2	100.0 (116)
300~400만원	20.1	21.5	58.4	100.0 (219)
400~500만원	16.8	17.8	65.3	100.0 (202)
500~600만원	22.1	20.2	57.7	100.0 (163)
600~700만원	28.3	15.0	56.7	100.0 (120)
700만원 이상	17.2	19.3	63.5	100.0 (192)
$\chi^2(df)$	10.179(10)			
지역구분				
대도시	18.0	21.0	61.0	100.0 (395)
중소도시	23.5	16.2	60.3	100.0 (456)
농어촌	17.4	21.1	61.5	100.0 (161)
$\chi^2(df)$	7.073(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발표 1

□ 거주 지역에 기후변화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역환경교육센터’ 42.2%〉 ‘(문화)복지센터’가 41.7%〉 ‘기후변화홍보관(센터 등)’ 14.6% 순으로 응답됨.

〈표 29〉 기후변화(또는 자연보호)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

단위: %(명)

구분	(문화)복지센터	지역환경 교육센터	기후변화홍보관 (센터 등)	환경교육 단체	기타	계(수)
전체	41.7	42.2	41.3	14.6	6.3	(206)
영아	45.2	37.1	38.7	14.5	6.5	(62)
유아	40.3	44.4	42.4	14.6	6.3	(144)
기관 구분						
유치원	37.8	42.7	48.8	14.6	2.4	(82)
어린이집	46.8	39.6	36.0	13.5	9.9	(111)
기타	23.1	61.5	38.5	23.1	0.0	(1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기후변화 정책(적응과 완화) 관련 의견

- ‘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은 58.2%, ‘적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은 41.8%로 나타남. 부모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높게 응답됨.

〈표 30〉 정책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

단위: %(명)

구분	적응	완화	계(수)
전체	41.8	58.2	100.0 (1,012)
응답자 연령			
20대	51.7	48.3	100.0 (29)
30대	39.2	60.8	100.0 (567)
40대 이상	44.7	55.3	100.0 (416)
$\chi^2(df)$	4.256(2)		
응답자 최종학력			
고졸 이하	48.5	51.5	100.0 (101)
대졸(3년제 이하)	53.1	46.9	100.0 (179)
대졸(4년제)	38.3	61.7	100.0 (600)
대학원 이상	37.1	62.9	100.0 (132)
$\chi^2(df)$	15.374(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1.

□(적응정책 중점 이유) 정책개발 중 ‘적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응에 집중하는 방향이 적합하다’라는 응답이 32.2%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완화정책보다 적응정책에 들어가는 국민들의 노력이 적을 것 같아서’가 22.2%, ‘완화정책보다 적응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16.5%, ‘완화정책보다 적응정책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적을 것 같아서’는 12.8%, 기타는 1.7%임.

〈표 31〉 적응- 응답한 이유(부모)

단위: %(명)

구분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응에 집중하는 방향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완화정책보다 적응 정책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적을 것 같아서	완화정책보다 적응 정책에 들어가는 국민들의 노력이 적을 것 같아서	완화정책보다 적응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해서	완화정책과 관련된 기술(예, 탄소저감 기술 등)이 우리나라에는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기타	계(수)
전체	32.2	12.8	22.2	16.5	14.7	1.7	100.0 (423)
응답자 연령							
20대	40.0	26.7	26.7	0.0	6.7	0.0	100.0 (15)
30대	34.7	11.3	22.5	15.8	13.5	2.3	100.0 (222)
40대 이상	28.5	13.4	21.5	18.8	16.7	1.1	100.0 (186)
$\chi^2(df)$	10.031(10)						
자녀연령							
영아	28.1	13.5	23.0	18.0	15.2	2.2	100.0 (178)
유아	35.1	12.2	21.6	15.5	14.3	1.2	100.0 (245)
$\chi^2(df)$	2.877(5)						
지역구분							
대도시	32.0	12.8	25.0	18.0	11.6	0.6	100.0 (172)
중소도시	31.1	12.6	20.5	15.8	17.4	2.6	100.0 (190)
농어촌	36.1	13.1	19.7	14.8	14.8	1.6	100.0 (61)
$\chi^2(df)$	6.128(10)						
응답자 최종학력							
고졸 이하	34.7	10.2	22.4	14.3	18.4	0.0	100.0 (49)
대졸(3년제 이하)	32.6	16.8	20.0	17.9	11.6	1.1	100.0 (95)
대졸(4년제)	28.7	12.2	24.3	16.1	16.5	2.2	100.0 (230)
대학원 이상	44.9	10.2	16.3	18.4	8.2	2.0	100.0 (49)
$\chi^2(df)$	11.536(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완화정책 중점 이유) 정책개발 중 '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로, '근본적인 기후변화 원인에 대한 해결이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6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관련 기술 개발(예, 탄소저감 기술, 전기차 등)이 활성화될 것 같아서'가 16.5%, '적응정책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라는 응답이 11.7%,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는 7.1%, 기타는 0.2%로 나타남.

〈표 32〉 완화- 응답한 이유(부모)

단위: %(명)

구분	근본적인 기후 변화 원인에 대 한 해결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적응정책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 되어서	관련 기술 개발(예, 탄소저감 기술, 전기차 등)이 활성화 될 것 같아서	기타	계(수)
전체	64.5	7.1	11.7	16.5	0.2	100.0 (589)
자녀연령						
영아	64.9	6.7	12.4	16.0	0.0	100.0 (225)
유아	64.3	7.4	11.3	16.8	0.3	100.0 (364)
$\chi^2(df)$	0.950(4)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60.0	12.7	10.9	16.4	0.0	100.0 (55)
300~400만원	62.6	6.9	10.7	19.8	0.0	100.0 (131)
400~500만원	66.7	8.8	11.4	13.2	0.0	100.0 (114)
500~600만원	64.3	4.1	12.2	18.4	1.0	100.0 (98)
600~700만원	65.8	5.5	11.0	17.8	0.0	100.0 (73)
700만원 이상	66.1	6.8	13.6	13.6	0.0	100.0 (118)
$\chi^2(df)$	12.969(20)					
지역구분						
대도시	65.0	8.1	10.8	15.7	0.4	100.0 (223)
중소도시	66.5	6.8	10.2	16.5	0.0	100.0 (266)
농어촌	58.0	6.0	18.0	18.0	0.0	100.0 (100)
$\chi^2(df)$	7.308(8)					
응답자 최종학력						
고졸 이하	61.5	11.5	9.6	17.3	0.0	100.0 (52)
대졸(3년제 이하)	57.1	7.1	8.3	27.4	0.0	100.0 (84)
대졸(4년제)	67.6	6.5	11.1	14.6	0.3	100.0 (370)
대학원 이상	60.2	7.2	19.3	13.3	0.0	100.0 (83)
$\chi^2(df)$	16.374(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아동대상 적합한 적응정책)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응답자 부모 중 83.3%가 바람직하다고 응답, 16.7%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함.

-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843명 부모들은 아동 대상으로 추진할 적절한 적응 정책으로 ‘아동 관련 시설 및 인프라지원(유치원, 어린이집 리모델링, 노후 에어컨 및 난방시설 교체)’이 61.6%〉 ‘아동 대상 기후변화교육’ 56.7%〉 ‘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강화’ 38.9%〉 ‘부모대상 기후변화교육’ 34.2% 순으로 응답함. ‘주거취약계층 아동 대상 주거 지원 강화’는 8.7%로 가장 낮게 응답됨

〈표 33〉 아동 대상 적절한 적응 정책에 대한 부모 의견 (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아동 대상 기후 변화교육	부모 대상 기후변 화교육	아동 관련 시설 및 인프라지원	아동에 대한 건강 관리 지원 강화	주거취약계층 아동 대상 주거 지원 강화	계(수)
전체	56.7	34.2	61.6	38.9	8.7	(843)
응답자 연령						
20대	45.8	41.7	66.7	20.8	25.0	(24)
30대	54.5	34.9	59.7	42.5	8.5	(459)
40대 이상	60.3	32.8	63.6	35.6	7.8	(360)
자녀연령						
영아	54.6	38.0	60.2	38.9	8.3	(337)
유아	58.1	31.6	62.5	38.9	8.9	(506)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8.5	44.3	55.7	38.1	13.4	(97)
300~400만원	54.5	30.7	61.9	42.9	10.1	(189)
400~500만원	57.8	39.2	60.8	35.5	6.6	(166)
500~600만원	62.0	27.1	64.3	39.5	7.0	(129)
600~700만원	64.9	30.9	60.8	38.1	5.2	(97)
700만원 이상	53.9	34.5	63.6	38.2	9.7	(165)
지역구분						
대도시	57.1	33.9	61.9	39.0	8.1	(333)
중소도시	55.7	35.4	62.3	37.2	9.5	(379)
농어촌	58.8	31.3	58.8	43.5	7.6	(131)
응답자 최종학력						
고졸 이하	45.1	32.9	59.8	41.5	20.7	(82)
대졸(3년제 이하)	54.2	40.3	60.4	38.2	6.9	(144)
대졸(4년제)	60.2	33.7	60.7	38.3	7.1	(507)
대학원 이상	52.7	29.1	68.2	40.9	9.1	(1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주체별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한 부모 평가) 일반국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에 대해 각 주체별로 부모들이 평가한 결과, 시민단체가 평균 3.1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국민이 평균 2.7점 > 시도교육청과 기업이 각각 평균 2.6점 > 지방자치단체가 평균 2.5점> 중앙정부가 평균 2.4점으로 가장 낮음.

〈표 34〉 각 주체들의 기후변화 대응의 노력 평가(부모)

단위: %(명), 점

구분	부정 응답	매우 못하고 있음	못하고 있음	보통	잘하고 있음	매우 잘하고 있음	긍정 응답	계(수)	평균
1. 중앙정부	51.3	19.7	31.6	41.8	6.4	0.5	6.9	100.0 (1,012)	2.4
2.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45.2	12.7	32.5	46.9	7.4	0.4	7.8	100.0 (1,012)	2.5
3. 시도교육청	40.2	10.6	29.6	50.2	9.3	0.3	9.6	100.0 (1,012)	2.6
4. 기업	43.7	14.6	29.1	42.3	12.8	1.2	14.0	100.0 (1,012)	2.6
5. 시민단체(환경단체)	22.7	7.3	15.4	45.9	26.5	4.8	31.3	100.0 (1,012)	3.1
6. 일반국민	37.4	8.1	29.3	52.3	8.7	1.6	10.3	100.0 (1,012)	2.7

□ (가장 적합한 영유아기 기후환경교육 주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24.1%, ‘중앙부처’ 17.8%, ‘시민단체(환경단체)’ 5.2%, ‘가정’ 4.9%, ‘기타’ 0.2%로 응답됨.

- 어머니 응답자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53.9%의 과반 이상으로 높게 응답, 아버지의 경우 어린이집을 39.7%,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28.8%, 중앙부처 23.4% 순으로 응답하여 차이를 보임.

〈표 35〉 가장 적합한 영유아기 기후환경교육 주체 (부모)

단위: %(명)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시민단체 (환경단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정	기타	계(수)
전체	17.8	24.1	5.2	47.7	4.9	0.2	100.0 (1,012)
성별							
남성	23.4	28.8	3.6	39.7	4.3	0.2	100.0 (441)
여성	13.5	20.5	6.5	53.9	5.4	0.2	100.0 (571)
$\chi^2(df)$	35.882(5)***						35.882(5)***
기관 구분							
유치원	15.3	25.0	5.3	49.4	5.0	0.0	100.0 (340)
어린이집	17.6	23.2	4.9	49.9	4.0	0.4	100.0 (569)
기타	27.2	26.2	6.8	30.1	9.7	0.0	100.0 (103)
$\chi^2(df)$	22.110(10)*						22.110(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 (중앙부처 중 가장 적합한 영유아기 기후환경교육 주제) 부모들은 가장 적절한 부처로 '환경부'를 63.9%로 가장 높게 응답함, 이외에 '교육부' 23.9%, '보건복지부'가 11.7%임.

〈표 36〉 중앙부처 중 영유아기 기후환경교육의 주체로 가장 적절한 부처

단위: %(명)

구분	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타	계(수)
전체	63.9	23.9	11.7	0.6	100.0 (180)
응답자 연령					
20대	50.0	25.0	25.0	0.0	100.0 (4)
30대	64.4	23.0	11.5	1.1	100.0 (87)
40대 이상	64.0	24.7	11.2	0.0	100.0 (89)
$\chi^2(df)$	1.876(6)				
자녀연령					
영아	56.6	26.3	15.8	1.3	100.0 (76)
유아	69.2	22.1	8.7	0.0	100.0 (104)
$\chi^2(df)$	4.709(3)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63.2	21.1	15.8	0.0	100.0 (19)
300~400만원	56.3	34.4	9.4	0.0	100.0 (32)
400~500만원	61.0	22.0	14.6	2.4	100.0 (41)
500~600만원	70.8	20.8	8.3	0.0	100.0 (24)
600~700만원	70.8	16.7	12.5	0.0	100.0 (24)
700만원 이상	65.0	25.0	10.0	0.0	100.0 (40)
$\chi^2(df)$	7.417(15)				
지역구분					
대도시	67.1	21.9	11.0	0.0	100.0 (73)
중소도시	62.2	23.0	14.9	0.0	100.0 (74)
농어촌	60.6	30.3	6.1	3.0	100.0 (33)
$\chi^2(df)$	6.946(6)				
응답자 최종학력					
고졸 이하	53.8	46.2	0.0	0.0	100.0 (13)
대졸(3년제 이하)	57.6	27.3	15.2	0.0	100.0 (33)
대졸(4년제)	65.5	21.8	11.8	0.9	100.0 (110)
대학원 이상	70.8	16.7	12.5	0.0	100.0 (24)
$\chi^2(df)$	6.725(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4. 영유아 교사(기관) 조사 주요 결과

가. 기후변화 인식

□ (교사의 기후문제 관심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 있다는 응답이 82.2%로 높음(평균 3.9점/5점 만점).

- 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기후변화에 매우 관심이 있다는 비율이 높음.

〈표 37〉 교사의 기후변화 문제 관심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관심 없음	관심 없는 편	보통	관심 있는 편	매우 관심 있음	계(수)	평균
전체	0.4	0.9	16.5	50.1	32.1	100.0 (922)	4.1
교사 경력							
4년 이하	0.5	1.1	19.7	59.0	19.7	100.0 (183)	4.0
5~9년 이하	0.0	1.2	18.7	53.2	27.0	100.0 (252)	4.1
10~14년 이하	1.0	0.5	20.5	46.2	31.9	100.0 (210)	4.1
15년 이상	0.4	0.7	9.4	44.4	45.1	100.0 (277)	4.3
$\chi^2(df) / F$	46.986(12)***						11.6***(a)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 (기후변화 원인에 대한 교사 인지) 교사들이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61.1%(아는 편 53.8%, 매우 잘 앎 7.3%) (평균 3.6점/5점 만점).

-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에 비하여, 공립유치원이 다른 설립유형에 비하여 기후변화 원인에 대한 인지도가 유의하게 더 높음.

〈표 38〉 교사의 기후변화 원인 인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모름	모르는 편	보통	아는 편	매우 잘 앎	계(수)	평균
전체	0.1	4.2	34.6	53.8	7.3	100.0 (922)	3.6
기관1							
유치원	0.2	1.9	28.3	61.0	8.6	100.0 (421)	3.8
어린이집	0.0	6.2	39.9	47.7	6.2	100.0 (501)	3.5
$\chi^2(df) / t$	29.438(4)***						4.9***
기관2							
공립유치원	0.4	1.9	25.9	61.9	10.0	100.0 (270)	3.8
사립유치원	0.0	2.0	32.5	59.6	6.0	100.0 (151)	3.7
국공립어린이집	0.0	3.0	47.0	43.0	7.0	100.0 (100)	3.5
그 외 어린이집	0.0	7.0	38.2	48.9	6.0	100.0 (401)	3.5
$\chi^2(df) / t$	39.563(12)***						8.7***(a)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기후문제 해결방법에 대한 교사 인식) 기후변화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53.5%로 절반 수준이며(아는 편 47.6%, 매우 잘 알 5.9%), 7.4%의 교사는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모른다고 응답.

〈표 39〉 교사의 기후변화문제 해결 방법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모름	모르는 편	보통	아는 편	매우 잘 알	계(수)	평균
전체	0.2	7.2	39.2	47.6	5.9	100.0 (922)	3.5
기관1							
유치원	0.0	5.0	32.3	55.3	7.4	100.0 (421)	3.7
어린이집	0.4	9.0	44.9	41.1	4.6	100.0 (501)	3.4
$\chi^2(df) / t$	28.790(4)***						5.2***
기관2							
공립유치원	0.0	4.1	29.3	58.1	8.5	100.0 (270)	3.7
사립유치원	0.0	6.6	37.7	50.3	5.3	100.0 (151)	3.5
국공립어린이집	0.0	8.0	51.0	34.0	7.0	100.0 (100)	3.4
그 외 어린이집	0.5	9.2	43.4	42.9	4.0	100.0 (401)	3.4
$\chi^2(df) / t$	39.246(12)***						10.9***(a)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기후문제 심각정도에 대한 교사 인식) 우리나라 기후문제의 심각 정도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92.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심각한 편 50.2%, 매우 심각 42.2%) (평균 4.3점/5점 만점).

- 어린이집 교사보다 유치원 교사가,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사들이 유의하게 기후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응답함.

〈표 40〉 우리나라 기후변화문제 심각 정도에 대한 교사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음	심각하지 않은 편	보통	심각한 편	매우 심각	계(수)	평균
전체	0.0	0.2	7.4	50.2	42.2	100.0 (922)	4.3
기관1							
유치원	0.0	0.0	6.9	45.8	47.3	100.0 (421)	4.4
어린이집	0.0	0.4	7.8	53.9	37.9	100.0 (501)	4.3
$\chi^2(df) / t$	9.615(3)*						2.7**
교사 경력							
4년 이하	0.0	0.5	9.3	51.9	38.3	100.0 (183)	4.3
5~9년 이하	0.0	0.0	9.5	48.8	41.7	100.0 (252)	4.3
10~14년 이하	0.0	0.5	7.6	55.7	36.2	100.0 (210)	4.3
15년 이상	0.0	0.0	4.0	46.2	49.8	100.0 (277)	4.5
$\chi^2(df) / F$	18.227(9)*						4.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기후변화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 인식)** 중요하다는 교사 응답은 92.8%(중요한 편 45.7%, 매우 중요 47.1%)로 높게 나타남. 교사경력이 많을수록 중요하다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음.

〈표 41〉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도에 대한 교사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편	보통	중요한 편	매우 중요	계(수)	평균
전체	0.0	0.4	6.8	45.7	47.1	100.0 (922)	4.4
교사 경력							
4년 이하	0.0	1.6	9.8	53.6	35.0	100.0 (183)	4.2
5~9년 이하	0.0	0.4	7.5	47.2	44.8	100.0 (252)	4.4
10~14년 이하	0.0	0.0	6.7	47.1	46.2	100.0 (210)	4.4
15년 이상	0.0	0.0	4.3	37.9	57.8	100.0 (277)	4.5
$\chi^2(df) / F$			32.490(9)***				9.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세대 피해 정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교사 응답은 96.8%로 매우 높음 (평균 4.8점/5점 만점).

- 공립유치원과 국공립이외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가, 또한 교사경력이 많을수록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응답이 유의하게 높음.

〈표 42〉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세대 피해 정도에 대한 교사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피해 입지 않을 것	거의 피해 입지 않을 것	보통	다소 피해 입을 것	매우 큰 피해 입을 것	계(수)	평균
전체	0.0	0.1	3.0	18.3	78.5	100.0 (922)	4.8
기관2							
공립유치원	0.0	0.0	1.1	17.0	81.9	100.0 (270)	4.8
사립유치원	0.0	0.0	7.9	17.2	74.8	100.0 (151)	4.7
국공립어린이집	0.0	0.0	1.0	25.0	74.0	100.0 (100)	4.7
그 외 어린이집	0.0	0.2	3.0	18.0	78.8	100.0 (401)	4.8
$\chi^2(df) / t$			21.666(9)*				2.5(a)
교사 경력							
4년 이하	0.0	0.0	6.0	25.1	68.9	100.0 (183)	4.6
5~9년 이하	0.0	0.0	5.2	18.7	76.2	100.0 (252)	4.7
10~14년 이하	0.0	0.0	1.4	17.1	81.4	100.0 (210)	4.8
15년 이상	0.0	0.4	0.4	14.4	84.8	100.0 (277)	4.8
$\chi^2(df) / F$			30.788(9)***				7.7***(a)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세대의 피해영역) 기후변화로 인해 자녀를 비롯한 미래세대가 향후 가장 크게 피해를 볼 것이라고 교사들이 생각하는 영역은 ‘건강’(89.6%)이 가장 높음. 그 다음으로 ‘주거’ 4.0%, ‘고용 및 경제활동’ 3.7%, ‘교육’ 1.6%, ‘문화활동’ 0.5% 순임.

-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주거영역,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이외의 어린이집 교사들은 고용 및 경제활동 영역을 두 번째로 피해가 큰 영역으로 응답하여 차이를 보임.

〈표 43〉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세대의 피해영역(교사)

단위: %(명)

구분	건강	교육	고용 및 경제활동	주거	문화활동	기타	계(수)
전체	89.6	1.6	3.7	4.0	0.5	0.5	100.0 (922)
설립유형							
공립유치원	93.0	0.7	2.2	3.7	0.0	0.4	100.0 (270)
사립유치원	82.1	4.0	7.3	6.0	0.0	0.7	100.0 (151)
국공립어린이집	94.0	1.0	1.0	4.0	0.0	0.0	100.0 (100)
그 외 어린이집	89.0	1.5	4.0	3.5	1.2	0.7	100.0 (401)
$\chi^2(df)$	26.444(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교사의 기후변화문제 해결 기대) 사람들의 노력으로 기후변화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82.0% (평균 4.1점/ 5점 만점),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6.3%임.

- 교사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10년 미만이 경우에 비하여 기후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음.

〈표 44〉 교사의 기후변화문제 해결 기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해결하지 못할 것	별로 해결하지 못할 것	보통	약간 해결할 수 있을 것	상당한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계(수)	평균
전체	0.3	6.0	11.7	45.8	36.2	100.0 (922)	4.1
교사 경력							
4년 이하	0.0	7.7	14.2	50.3	27.9	100.0 (183)	4.0
5~9년 이하	0.0	6.7	15.9	46.0	31.3	100.0 (252)	4.0
10~14년 이하	1.0	6.7	10.5	39.0	42.9	100.0 (210)	4.2
15년 이상	0.4	3.6	7.2	47.7	41.2	100.0 (277)	4.3
$\chi^2(df) / F$	30.276(12)**						5.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나. 기후변화에 대한 교사의 감수성 및 실천역량

□(교사의 기후변화 감수성)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감수성을 조사한 결과, ‘다음 세대를 위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평균 4.5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나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기후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평균 3.7점), ‘나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평균 3.8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하여 낮게 나타남. 이러한 경향성은 부모 응답과 유사함.

〈표 45〉 기후변화에 대한 감수성(교사)

단위: %(명), 점

구분	부정 응답 1+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긍정 응답 4+5	계(수)	평균
		1	2		4	5			
1. 나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2	0.2	1.8	22.2	54.8	20.9	75.7	100.0 (92)	3.9
2. 나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기후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	5.3	0.5	4.8	29.5	50.5	14.6	65.1	100.0 (92)	3.7
3. 나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4.4	0.4	4.0	24.4	54.2	16.9	71.1	100.0 (92)	3.8
4. 다른 사람이 캔, 플라스틱, 병 등의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	1.9	0.4	1.5	9.0	48.3	40.8	89.1	100.0 (92)	4.3
5. 가까운 미래에 기후변화로 인해 나와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스럽다	1.2	0.2	1.0	9.0	51.0	38.8	89.8	100.0 (92)	4.3
6. 친환경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0.5	0.2	0.3	7.8	43.1	48.6	91.7	100.0 (92)	4.4
7. 내가 노력하면 기후 문제를 개선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다	3.7	0.7	3.0	16.6	52.7	27.0	79.7	100.0 (92)	4.0
8. 나의 생활 습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1.2	0.0	1.2	8.4	51.8	38.6	90.4	100.0 (92)	4.3
9. 다음 세대를 위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0.2	0.0	0.2	6.6	34.7	58.5	93.2	100.0 (92)	4.5
10. 나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인 생활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0.7	0.0	0.7	7.5	43.8	48.0	91.8	100.0 (92)	4.4
11. 나는 기후변화 문제를 위해 실천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0.4	0.0	0.4	8.8	47.7	43.1	90.8	100.0 (92)	4.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교사의 환경 행동실천) ‘산이나 공원 등 자연공간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의 긍정응답률은 93.4%이고, 평균 4.5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방에서 나갈 때 전기제품(조명, 컴퓨터 등)을 모두 끈다’(긍정 응답률 84.6%)는 평균 4.3점(5점 만점), ‘분리수거가 되는 품목을 잘 알고 철저하게 분리수거한다’(긍정응답률 80.8%)로 높게 나타남.

- 반면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긍정응답률 32.8%)’ 항목은 평균 3.0점(5점 만점)으로 가장 낮음. 흥미롭게도 이러한 경향성은 부모 응답과 유사함.

〈표 46〉 환경을 위한 행동 실천(교사)

단위: %(명), 점

구분	부정 응답 1+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긍정 응답 4+5	계(수)	평균
		1	2		4	5			
1. 냉난방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적정 실내온도(여름 26도 이상, 겨울 20도 이하)를 유지한다	7.2	0.3	6.9	17.2	43.5	32.0	75.5	100.0 (922)	4.0
2. 방에서 나갈 때 전기제품(조명, 컴퓨터 등)을 모두 끈다	4.6	0.2	4.4	10.7	37.9	46.7	84.6	100.0 (922)	4.3
3. 물건을 살 때 친환경마크(저탄소 제품, 친환경 인증 등)가 표기된 제품을 구매한다	15.3	1.7	13.6	37.6	34.6	12.5	47.1	100.0 (922)	3.4
4. 과대 포장인 제품은 사지 않는다	12.7	1.2	11.5	32.0	38.9	16.4	55.3	100.0 (922)	3.6
5.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39.5	9.7	29.8	27.8	17.8	15.0	32.8	100.0 (922)	3.0
6. 텀블러나 정바구니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용품을 가지고 다닌다.	7.7	1.1	6.6	20.0	36.2	36.1	72.3	100.0 (922)	4.0
7. 청구서나 영수증 등을 전자(모바일) 형식으로 제공 받는다	9.3	1.6	7.7	20.9	41.3	28.4	69.7	100.0 (922)	3.9
8. 산이나 공원 등 자연공간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0.5	0.1	0.4	6.1	34.6	58.8	93.4	100.0 (922)	4.5
9. 고기 섭취량을 줄이고 채소와 고기를 균형 있게 섭취한다	13.5	1.5	12.0	34.1	35.9	16.5	52.4	100.0 (922)	3.5
10. 생활 속에서 물을 아껴쓴다	4.3	0.1	4.2	27.5	45.4	22.7	68.1	100.0 (922)	3.9
11. 분리수거가 되는 품목을 잘 알고 철저하게 분리수거한다	1.8	0.1	1.7	17.4	44.5	36.3	80.8	100.0 (922)	4.2
12. 가능한 배달음식을 주문하여 먹지 않는다	21.5	3.6	17.9	31.5	29.1	18.0	47.1	100.0 (922)	3.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기후변화 실천 및 대응 활동(교사)

- ‘영유아가 기후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 나에게도 중요하다’ 항목의 긍정 응답률이 78.9%로 가장 높게 나타남(평균 4.0점/5점 만점).
- 반면 ‘나는 평소 영유아들과 기후변화나 기후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 (긍정응답률 58.7%), ‘영유아들이 기후변화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발견한다’ (59.0%), ‘나는 평소 영유아들에게 환경친화적인 환경이나 활동을 제공한다’ (59.6%)는 가장 낮게 나타남(평균 3.0점)

〈표 47〉 영유아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실천역량(교사)

단위: %(명), 점

구분	부정 응답 1+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 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긍정 응답 4+5	계(수)	평균
		1	2	3	4	5			
1. 나는 평소 영유아들과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	11.5	1.3	10.2	29.8	45.0	13.7	58.7	100.0 (1,000)	3.6
2. 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들과 의논하고 함께 실천한 적이 있다(예를 들어, 일회용품 안 쓰기, 대중교통 이용이나 걷기, 에너지 절약 등)	8.7	0.8	7.9	25.6	47.3	18.4	65.7	100.0 (1,000)	3.7
3. 나는 평소 영유아들에게 환경친화적인 환경이나 활동을 제공한다.	7.5	0.7	6.8	33.0	47.3	12.3	59.6	100.0 (1,000)	3.6
4. 영유아들이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 나에게도 중요하다	2.3	0.1	2.2	18.9	53.7	25.2	78.9	100.0 (1,000)	4.0
5. 영유아들이 기후변화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발견한다.	8.1	1.2	6.9	32.9	44.0	15.0	59.0	100.0 (1,000)	3.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다. 기후변화교육 관련 교사연수 경험

□ (기후변화교육에 대한 교사 관심도) 교사의 관심이 많은 경우 53.6%, 매우 많다 32.2%로 순으로 매우 높음 (평균 4.2점/ 5점 만점)

-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또한 경력이 많은 교사가 기후변화교육에 더 관심이 많음.



〈표 48〉 기후변화교육 관심정도(교사)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0.0	0.8	13.4	53.6	32.2	100.0 (922)	4.2
기관1							
유치원	0.0	1.0	8.6	51.3	39.2	100.0 (421)	4.3
어린이집	0.0	0.6	17.6	55.5	26.3	100.0 (501)	4.1
$\chi^2(df) / t$			26.657(3)***				4.8***
기관2							
공립유치원	0.0	0.4	5.6	51.5	42.6	100.0 (270)	4.4
사립유치원	0.0	2.0	13.9	51.0	33.1	100.0 (151)	4.2
국공립어린이집	0.0	0.0	20.0	56.0	24.0	100.0 (100)	4.0
그 외 어린이집	0.0	0.7	17.0	55.4	26.9	100.0 (401)	4.1
$\chi^2(df) / t$			39.079(9)***				11.1***
교사 경력							
4년 이하	0.0	1.1	13.1	58.5	27.3	100.0 (183)	4.1
5~9년 이하	0.0	0.8	16.3	57.5	25.4	100.0 (252)	4.1
10~14년 이하	0.0	1.4	18.1	49.0	31.4	100.0 (210)	4.1
15년 이상	0.0	0.0	7.6	50.2	42.2	100.0 (277)	4.3
$\chi^2(df) / F$			32.216(9)***				9.1***(a)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최근 5년간 기후변화교육 연수 경험) 연수경험이 있는 교사는 27.8%에 불과함. 10명 중 7명의 교사는 기후교육 관련 연수를 받지 못함.

- 특히, 어린이집 교사의 83.2%, 4년 이하의 저경력 교사의 86.3%가 연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49〉 최근 5년간 기후변화교육 관련 연수 경험(교사)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전체	27.8	72.2	100.0 (922)
기관1			
유치원	40.9	59.1	100.0 (421)
어린이집	16.8	83.2	100.0 (501)
$\chi^2(df) / t$	66.185(1)***		
기관2			
공립유치원	39.6	60.4	100.0 (270)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사립유치원	43.0	57.0	100.0 (151)
국공립어린이집	23.0	77.0	100.0 (100)
그 외 어린이집	15.2	84.8	100.0 (401)
$\chi^2(df) / t$	69.169(3)***		
교사 경력			
4년 이하	13.7	86.3	100.0 (183)
5~9년 이하	26.6	73.4	100.0 (252)
10~14년 이하	27.6	72.4	100.0 (210)
15년 이상	38.3	61.7	100.0 (277)
$\chi^2(df) / F$	33.559(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유치원교사 기후변화교육 연수기관) 기후변화교육 연수 경험이 있는 총 172명의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받은 모든 기관을 응답하도록 한 결과, 교육연수원이 61.6%로 가장 많고, 시도교육청 18.6% > 지역교육지원청 16.9% > 유아교육진흥원 13.4% > 기타 12.8% > 학회 7.0% 순으로 파악됨.

〈표 50〉 최근 5년간 기후변화교육 관련 연수기관(유치원교사만 응답)

단위: %(명)

구분	시도교육청 (본청)	지역교육 지원청	유아교육 진흥원	교육연수원	학회	기타	계(수)
전체	18.6	16.9	13.4	61.6	7.0	12.8	(172)
기관1 유치원	18.6	16.9	13.4	61.6	7.0	12.8	(172)
기관2 공립유치원	22.4	15.9	10.3	67.3	5.6	12.1	(107)
사립유치원	12.3	18.5	18.5	52.3	9.2	13.8	(65)
교사 경력							
4년 이하	5.0	25.0	10.0	65.0	5.0	15.0	(20)
5~9년 이하	23.4	21.3	17.0	53.2	4.3	6.4	(47)
10~14년 이하	30.3	12.1	9.1	66.7	9.1	15.2	(33)
15년 이상	13.9	13.9	13.9	63.9	8.3	15.3	(7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어린이집 교사 기후변화교육 보수교육기관) 기후변화교육 연수 경험이 있는 총 84명의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받은 모든 기관을 응답하도록 한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57.1%로 가장 많고, 한국보육진흥원 19.0% > 학회 11.9% > 보육교사교육원 10.7%로 나타남.

〈표 51〉 최근 5년간 기후변화교육 관련 보수교육기관(어린이집교사만 응답)

단위: %(명)

구분	육아종합 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 원	학회	보육교사교육 원	기타	계(수)
전체	57.1	19.0	11.9	10.7	27.4	(84)
설립 유형						
국공립	56.5	26.1	13.0	13.0	21.7	(23)
민간	55.6	11.1	11.1	5.6	27.8	(18)
가정	64.7	35.3	17.6	23.5	17.6	(17)
그 외	53.8	7.7	7.7	3.8	38.5	(26)
교사 경력						
4년 이하	60.0	20.0	0.0	20.0	20.0	(5)
5~9년 이하	55.0	15.0	10.0	20.0	20.0	(20)
10~14년 이하	72.0	12.0	8.0	8.0	20.0	(25)
15년 이상	47.1	26.5	17.6	5.9	38.2	(3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교사연수 방식과 유형) 최근 5년간 기후변화교육 연수 경험이 있는 총 256명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경험한 모든 연수 방식을 응답하도록 한 결과, 온라인교육이 77.7%로 주된 방식이며, 집합교육 17.6%, 집합+온라인 병행 14.5%로 조사됨.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유치원은 온라인교육을, 국공립이외 어린이집은 집합+온라인 병행, 집합교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기후변화교육을 직무연수로 받은 교사가 67.6%, 자격연수 시 과목으로 포함하여 받은 경우가 19.5%로 조사됨. 유치원 교사는 직무연수로 받은 비중이 80.2%로 높은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41.7%로 절반 수준에 그침.

〈표 52〉 기후변화 연수방식과 유형

단위: %(명)

구분	연수 방식 (복수응답)			연수 유형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집합+온라인 병행	자격연수	직무연수	기타	계(수)
전체	17.6	77.7	14.5	19.5	67.6	19.9	(256)
기관1							
유치원	16.3	80.8	12.2	16.3	80.2	12.2	(172)
어린이집	20.2	71.4	19.0	26.2	41.7	35.7	(84)
기관2							
공립유치원	15.0	81.3	13.1	16.8	84.1	7.5	(107)
사립유치원	18.5	80.0	10.8	15.4	73.8	20.0	(65)
국공립어린이집	17.4	87.0	4.3	26.1	26.1	52.2	(23)
그 외 어린이집	21.3	65.6	24.6	26.2	47.5	29.5	(6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교사연수 횟수와 시간) 기후변화교육 연수 경험이 있는 총 256명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총 연수 횟수와 총 연수 시간을 조사함.

- 최근 5년간 총 1회 59.8%로 가장 많으며, 2회가 23.4%, 3회 7.4%, 4회가 2.3%, 5회 이상 7.0%임(5년간 평균 총 1.9회), 기관유형 및 설립유형, 교사경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최근 5년간 기후변화 교사연수 시간은 평균 8.5시간으로, 7시간 이상이 35.5%로 가장 많으며, 1-2시간 이하가 34.8%, 3-4시간이 21.5%, 5-6시간은 8.2% 순으로 조사됨.
- 유치원교사의 경우 연수시간이 7시간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고(45.9%), 반면 어린이집교사는 1-2시간이 52.4%로 가장 비중이 많음.

〈표 53〉 기후변화 교사연수 횟수와 시간

단위: %(명), 회, 시간

구분	기후변화 교사연수 받은 횟수						기후변화 교사 연수 시간					계(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평균	1시간~2시간	3시간~4시간	5시간~6시간	7시간 이상	평균	
전체	59.8	23.4	7.4	2.3	7.0	1.9	34.8	21.5	8.2	35.5	8.5	(256)
기관1												
유치원	61.6	22.1	7.0	2.9	6.4	1.8	26.2	21.5	6.4	45.9	10.2	(172)
어린이집	56.0	26.2	8.3	1.2	8.3	2.3	52.4	21.4	11.9	14.3	5.0	(84)
$\chi^2(df) / t$	1.859(4)						29.146(3)***					4.3***



구분	기후변화 교사연수 받은 횟수						기후변화 교사 연수 시간					계(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평균	1시간~2시간	3시간~4시간	5시간~6시간	7시간 이상	평균	
기관2												
공립유치원	62.6	23.4	7.5	1.9	4.7	1.6	23.4	14.0	7.5	55.1	12.7	(107)
사립유치원	60.0	20.0	6.2	4.6	9.2	2.0	30.8	33.8	4.6	30.8	6.2	(65)
국공립어린이집	60.9	26.1	8.7	0.0	4.3	1.6	60.9	17.4	17.4	4.3	3.0	(23)
그 외 어린이집	54.1	26.2	8.2	1.6	9.8	2.5	49.2	23.0	9.8	18.0	5.7	(61)
$\chi^2(df) / t$	5.733(12)						47.282(9)***					10.4***(a)
교사 경력												
4년 이하	68.0	24.0	0.0	0.0	8.0	2.0	36.0	24.0	0.0	40.0	5.8	(25)
5~9년 이하	64.2	19.4	7.5	3.0	6.0	2.1	32.8	25.4	6.0	35.8	8.6	(67)
10~14년 이하	55.2	27.6	5.2	3.4	8.6	2.0	44.8	19.0	5.2	31.0	7.6	(58)
15년 이상	57.5	23.6	10.4	1.9	6.6	1.8	30.2	19.8	13.2	36.8	9.6	(106)
$\chi^2(df) / F$	6.665(12)						10.128(9)					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기후변화 연수주제) 교사들이 응답한 연수주제(복수응답)는 기후변화의 문제점과 기후변화교육의 필요성/중요성 77.3%,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과 활동 44.1%, 기후변화교육 이론 17.2%, 기후변화교육 평가 5.1% 으로 나타남.

〈표 54〉 기후변화 연수주제/내용(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기후변화의 문제점과 기후변화교육의 필요성/중요성	기후변화교육 이론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	기후변화 교육 평가	기타	계(수)
전체	77.3	17.2	44.1	5.1	1.6	(256)
기관1						
유치원	75.6	16.3	45.3	2.9	1.7	(172)
어린이집	81.0	19.0	41.7	9.5	1.2	(84)
교사 경력						
4년 이하	72.0	32.0	24.0	4.0	0.0	(25)
5~9년 이하	80.6	19.4	55.2	4.5	3.0	(67)
10~14년 이하	77.6	13.8	43.1	5.2	1.7	(58)
15년 이상	76.4	14.2	42.5	5.7	0.9	(10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기후변화교육 관련 정보습득 경로)** 연수이외에 교사 스스로 기후변화교육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습득하는 경로를 알아 본 적이 있다는 교사 총 4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관련 다큐멘터리 시청(유튜브 시청 등) 46.1%, 온라인 자료 검색 39.2%가 주된 경로로 파악됨. 이외에, 체험관 견학 6.2%, 도서 탐독 6.0%로 나타남.

〈표 55〉 기후변화교육 관련 정보습득 경로

단위: %(명)

구분	관련 다큐멘터리 시청 (유튜브 시청 등)	도서 탐독	체험관 견학	웹(온라인) 자료 (인터넷 검색)	기타	계(수)
전체	46.1	6.0	6.2	39.2	2.4	100.0 (451)
기관1						
유치원	40.3	7.3	7.3	43.1	2.0	100.0 (248)
어린이집	53.2	4.4	4.9	34.5	3.0	100.0 (203)
$\chi^2(df)$	9.019(4)					
교사 경력						
4년 이하	48.1	3.7	7.4	40.7	0.0	100.0 (81)
5~9년 이하	44.2	5.0	5.0	44.2	1.7	100.0 (120)
10~14년 이하	49.0	6.3	4.2	37.5	3.1	100.0 (96)
15년 이상	44.8	7.8	7.8	35.7	3.9	100.0 (154)
$\chi^2(df)$	9.029(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라. 기후변화교육 실태

□ **(영유아 대상 기후변화교육 실시 경험)** 약간 있다 49.8%, 매우 많다 9.8%임. 거의 없다 34.1%, 전혀 없다 6.4%임.

-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기후변화교육 실시 경험이 없는 경우는 53.3%로 절반을 초과함.
- 교사 경력이 많을수록 기후변화교육 실시 경험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56〉 기후변화교육 실시 경험(교사)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없다	거의 없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계(수)	평균
전체	6.4	34.1	49.8	9.8	100.0 (922)	2.6
기관1						
유치원	2.6	22.6	60.1	14.7	100.0 (421)	2.9
어린이집	9.6	43.7	41.1	5.6	100.0 (501)	2.4
$\chi^2(df) / t$	83.516(3)***					9.4***
기관2						
공립유치원	1.1	19.6	61.9	17.4	100.0 (270)	3.0
사립유치원	5.3	27.8	57.0	9.9	100.0 (151)	2.7
국공립어린이집	4.0	44.0	47.0	5.0	100.0 (100)	2.5
그 외 어린이집	11.0	43.6	39.7	5.7	100.0 (401)	2.4
$\chi^2(df) / t$	101.079(9)***					34.2***(a)
교사 경력						
4년 이하	7.7	39.9	44.8	7.7	100.0 (183)	2.5
5~9년 이하	4.0	38.9	49.6	7.5	100.0 (252)	2.6
10~14년 이하	9.5	36.2	43.3	11.0	100.0 (210)	2.6
15년 이상	5.4	24.2	58.1	12.3	100.0 (277)	2.8
$\chi^2(df) / F$	28.900(9)**					5.4**(a)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영유아 대상 기후변화교육의 필요성)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이 90.9%(매우 필요 43.2%)로 매우 높음(평균 4.3점/ 5점 만점)

- 유치원교사(51.5%)가 어린이집교사(36/1%)보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유의하게 높음.

〈표 57〉 영유아 대상 기후변화교육 필요성(교사)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0.1	1.5	7.5	47.7	43.2	100.0 (922)	4.3
기관1							
유치원	0.0	1.2	5.2	42.0	51.5	100.0 (421)	4.4
어린이집	0.2	1.8	9.4	52.5	36.1	100.0 (501)	4.2
$\chi^2(df) / t$	24.509(4)***						4.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영유아 기후변화교육이 필요한 이유) 교사들은 영유아기부터 기후변화를 예방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56.2 % > 현재와 미래 기후문제를 해결 하는데 필요한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이기 때문, 23.7% > 영유아기는 환경 감수성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 12.2% > 기후변화교육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기 때문, 7.5% 순으로 응답함.

- 유치원 교사(18.0%)는 어린이집교사(7.3%)에 비해 ‘영유아기는 환경 감수성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

〈표 58〉 영유아 기후변화교육 필요한 이유(교사)

단위: %(명)

구분	영유아기는 환경 감수성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	영유아기부터 기후 변화를 예방 대응 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기후변화교육을 통 해 기후변화 문제 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기 때문	현재와 미래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이기 때문	기타	계(수)
전체	12.2	56.2	7.5	23.7	0.3	100.0 (907)
기관1						
유치원	18.0	52.4	5.8	23.8	0.0	100.0 (416)
어린이집	7.3	59.5	9.0	23.6	0.6	100.0 (491)
$\chi^2(df)$	28.661(4)***					
기관2						
공립유치원	20.9	51.9	5.2	22.0	0.0	100.0 (268)
사립유치원	12.8	53.4	6.8	27.0	0.0	100.0 (148)
국공립어린이집	8.1	57.6	9.1	24.2	1.0	100.0 (99)
그 외 어린이집	7.1	59.9	8.9	23.5	0.5	100.0 (392)
$\chi^2(df)$	35.823(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영유아 대상 기후변화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소수의 교사(15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내용이 영유아 발달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 특별히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기 때문 등으로 응답됨.



〈표 59〉 영유아 기후변화교육 필요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내용이 영유아 발달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	특히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기 때문	가정에서의 교육이 영유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	기후변화교육보다 다른 교육내용에 더 충실해야하기 때문	기타	계(수)
전체	46.7	26.7	13.3	6.7	6.7	100.0 (15)
기관1						
유치원	20.0	40.0	20.0	20.0	0.0	100.0 (5)
어린이집	60.0	20.0	10.0	0.0	10.0	100.0 (10)
$\chi^2(df)$	4.393(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영유아 기후변화교육 형태) 교사들은 영유아 대상 필요한 기후변화교육 형태로 일상생활 속 체험활동 63.9%, 놀이활동 16.6%, 부모와 함께 가정연계 프로그램 12.3%, 지식전달교육 4.1%, 영상매체 활용 3.0%로 파악됨.

- 교사 경력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4년 이하 교사는 놀이 활동을, 5-9년 경력교사는 부모와 함께 가정연계 프로그램을 필요한 교육 형태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함.

〈표 60〉 기후변화교육 형태(1순위)

단위: %(명)

구분	지식전달 교육	일상생활 속 체험활동	놀이 활동	부모와 함께 가정연계 프로그램	영상매체 활용 (유튜브 등)	기타	계(수)
전체	4.1	63.9	16.6	12.3	3.0	0.0	100.0 (907)
기관 설립유형							
공립유치원	1.1	67.9	17.2	10.4	3.4	0.0	100.0 (268)
사립유치원	9.5	57.4	11.5	18.9	2.7	0.0	100.0 (148)
국공립어린이집	4.0	61.6	18.2	12.1	4.0	0.0	100.0 (99)
그 외 어린이집	4.1	64.3	17.9	11.2	2.6	0.0	100.0 (392)
$\chi^2(df)$	28.031(12)**						
교사 경력							
4년 이하	3.4	61.5	23.5	7.8	3.9	0.0	100.0 (179)
5~9년 이하	5.2	57.2	17.6	18.0	2.0	0.0	100.0 (250)
10~14년 이하	2.9	68.4	12.1	12.1	4.4	0.0	100.0 (206)
15년 이상	4.4	68.4	14.7	10.3	2.2	0.0	100.0 (272)
$\chi^2(df)$	27.056(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영유아 기후변화 주된 교육내용)** 교사들은 영유아 대상 실시하는 기후변화교육의 중심 내용(요소)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3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기후변화 원인 28.8%, 기후변화 완화 18.9%, 기후변화 현상과 원리 8.7%, 기후 적응 4.2% 순으로 나타남.

〈표 61〉 영유아 기후변화의 주된 교육내용(교사)

단위: %(명)

구분	기후변화 현상과 원리	기후변화 원인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완화 (감축)	계(수)
전체	8.7	28.8	39.3	4.2	18.9	100.0 (549)
기관1						
유치원	8.6	28.3	37.5	3.5	22.2	100.0 (315)
어린이집	9.0	29.5	41.9	5.1	14.5	100.0 (234)
$\chi^2(df)$	5.814(4)					
교사 경력						
4년 이하	5.2	26.0	46.9	4.2	17.7	100.0 (96)
5~9년 이하	7.6	31.3	39.6	2.8	18.8	100.0 (144)
10~14년 이하	6.1	28.9	43.9	5.3	15.8	100.0 (114)
15년 이상	12.8	28.2	32.8	4.6	21.5	100.0 (195)
$\chi^2(df)$	13.284(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영유아 기후변화 교육방법)** 영유아 대상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교육 방법으로 기후변화관련 행사와 캠페인 39.3%, 놀이활동 31.9%, 다큐멘터리 시청 15.5%, 과학관, 센터 등 기관 방문 11.7% 순으로 조사됨.

- 기관 설립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공립유치원은 다큐멘터리 시청을, 사립유치원은 과학관 등 기관방문(견학), 국공립과 이외의 어린이집은 놀이활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됨.
- 중소도시와 대도시는 기후변화 관련 행사, 농어촌 지역은 놀이활동을 유의하게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됨.



〈표 62〉 기후변화교육 실시 방법(교사)

단위: %(명)

구분	다큐멘터리 시청	과학관, 센터 등 기관 방문	기후변화 관련 행사 운영(지구촌 전등 끄기 기념일 등), 캠페인 등	놀이활동	기타	계(수)
전체	15.5	11.7	39.2	31.9	1.8	100.0 (549)
기관1						
유치원	16.8	11.1	43.2	26.7	2.2	100.0 (315)
어린이집	13.7	12.4	33.8	38.9	1.3	100.0 (234)
$\chi^2(df)$	11.032(4)*					
기관2						
공립유치원	18.2	7.5	41.6	31.3	1.4	100.0 (214)
사립유치원	13.9	18.8	46.5	16.8	4.0	100.0 (101)
국공립어린이집	13.5	7.7	34.6	42.3	1.9	100.0 (52)
그 외 어린이집	13.7	13.7	33.5	37.9	1.1	100.0 (182)
$\chi^2(df)$	28.522(12)**					
지역구분						
대도시	16.1	12.8	36.7	32.2	2.2	100.0 (180)
중소도시	11.2	13.3	47.4	26.5	1.5	100.0 (196)
농어촌	19.7	8.7	32.4	37.6	1.7	100.0 (173)
$\chi^2(df)$	15.780(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마. 교육과정과의 연계

□ (개정 누리과정과 기후변화교육의 연계) 누리과정과 연계한 기후변화교육의 가능성에 대하여 교사들은 연계 가능하다는 응답이 84.9%로 높게 나타남.

- 교사 경력에 많을수록 개정 누리과정과 기후변화교육의 연계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게 응답함.

〈표 63〉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기후변화교육 가능성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0.0	1.5	13.6	54.9	30.0	100.0 (922)	4.1
기관1							
유치원	0.0	1.7	12.8	52.3	33.3	100.0 (421)	4.2
어린이집	0.0	1.4	14.2	57.1	27.3	100.0 (501)	4.1
$\chi^2(df) / t$	4.042(3)						1.5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교사 경력							
4년 이하	0.0	2.2	16.9	57.9	23.0	100.0 (183)	4.0
5~9년 이하	0.0	1.2	14.7	56.0	28.2	100.0 (252)	4.1
10~14년 이하	0.0	1.0	14.8	59.0	25.2	100.0 (210)	4.1
15년 이상	0.0	1.8	9.4	48.7	40.1	100.0 (277)	4.3
$\chi^2(df) / F$	24.043(9)**						5.9**(a)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기후변화교육과 연계성 높은 누리과정 영역) 개정 누리과정의 5개 영역 중 기후변화교육과 연계성이 높은 영역으로 자연탐구영역이 51.7%로 매우 높게 응답되었으며, 5개 모든 영역이 유사한 비중으로 연계성이 높다는 응답도 30.6%로 높게 나타남.

- 교사 경력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경력이 많을수록 누리과정의 5개 모든 영역과 유사한 비중으로 연계성이 높다는 비중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표 64〉 기후변화교육과 연계성 높은 개정 누리과정 영역

단위: %(명)

구분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모든 영역과 유사 한 비중으로 연계 성이 높음	계(수)
전체	6.4	3.7	6.2	1.4	51.7	30.6	100.0 (922)
교사 경력							
4년 이하	4.4	3.3	10.9	3.3	54.1	24.0	100.0 (183)
5~9년 이하	6.0	6.3	5.2	1.2	53.2	28.2	100.0 (252)
10~14년 이하	6.7	2.9	2.9	1.0	51.9	34.8	100.0 (210)
15년 이상	7.9	2.2	6.5	0.7	48.7	33.9	100.0 (277)
$\chi^2(df)$	32.155(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영유아 기후변화교육의 방향) 영유아 대상 기후변화교육의 가장 적절한 방향에 대하여 교사들은 ‘체험활동 중심의 기후변화교육’ 29.6%, ‘실생활 문제해결 중심’ 26.8%로 유사하게 높게 응답함. 그 다음으로 ‘유초중고로 연결되는 교육과정의 연계’, 21.4%, ‘놀이중심 기후변화교육’ 18.0%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후변화 관련 지식전달교육’은 1.3%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남.

- 유치원(16.9%)에 비하여 어린이집(25.1%)은 ‘유초중고로 연결되는 교육과정의 연계’를 기후변화교육의 방향으로 응답한 비중이 유의하게 높음.

〈표 65〉 영유아 기후변화교육의 방향(1순위) (교사)

단위: %(명)

구분	유-초-중-고로 연결되는 교육과정의 연계	체험활동 중심의 기후변화 교육	놀이 중심의 기후변화교육	실생활 문제해결 중심의 기후변화교육	개정 누리과정과 기후변화교육의 연계	기후변화 이론에 대한 지식전달 교육	계(수)
전체	21.4	29.6	18.0	26.8	2.9	1.3	100.0 (922)
기관1							
유치원	16.9	32.1	16.9	30.6	2.9	0.7	100.0 (421)
어린이집	25.1	27.5	19.0	23.6	3.0	1.8	100.0 (501)
$\chi^2(df)$	15.859(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영유아 대상 기후변화교육의 목표) 영유아 대상 기후변화교육의 가장 적절한 목표에 대하여 교사들은 ‘기후변화 대응방법을 익히고 기후문제 해결과정에 참여’ 32.4%, ‘기후변화 대응 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가치관 형성’ 27.5%, ‘기후변화에 대한 감수성과 배려의 태도 형성’ 23.4% , ‘기후변화 현상, 원인, 대응 이해’ 16.6% 순으로 조사됨.

- 기관 유형 및 설립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유치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감수성과 배려의 태도 형성’(30.2%), 어린이집은 ‘기후변화 대응방법과 기후문제 해결과정에 참여’(34.7%)를 가장 높게 응답함.
- 공립유치원은 ‘기후변화 감수성과 기후문제 해결과정 참여’를 반면, 사립유치원은 ‘기후변화 현상, 원인, 대응방법 이해’를 가장 높게 응답함. 한편, 어린이집은 ‘환경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국공립이외 어린이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함.



〈표 66〉 영유아 기후변화교육의 교육목표

단위: %(명)

구분	기후변화의 현상, 원인, 대응 이해	기후변화 대응방법을 익히고 기후문제 해결과정에 참여	기후변화에 대한 감수성과 배려의 태도 형성	기후변화 대응 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가치관 형성	계(수)
전체	16.6	32.4	23.4	27.5	100.0 (922)
기관유형					
유치원	14.0	29.7	30.2	26.1	100.0 (421)
어린이집	18.8	34.7	17.8	28.7	100.0 (501)
$\chi^2(df)$	20.486(3)***				
기관 설립유형					
공립유치원	9.3	30.0	35.6	25.2	100.0 (270)
사립유치원	22.5	29.1	20.5	27.8	100.0 (151)
국공립어린이집	19.0	35.0	14.0	32.0	100.0 (100)
그 외 어린이집	18.7	34.7	18.7	27.9	100.0 (401)
$\chi^2(df)$	41.584(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영유아 기후변화교육의 방법) 영유아 대상 기후변화교육의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 실시' 39.3%, '연간 교육계획 수립 실시' 22.5%, '일과 중 기후변화교육이 필요한 상황 발생기 상시로 실시' 21.9%, '프로젝트 등 특정 활동주제로 집중 실시' 11.0%, '외부강사와 협력하여 특별활동으로 실시' 5.6% 순으로 조사됨.
- 교사경력이 많을수록 연간 교육계획으로 수립 실시하는 방법을 많이 응답함.

〈표 67〉 영유아 기후변화교육의 교육방법(1순위) (교사)

단위: %(명)

구분	연간 교육 계획으로 수립 실시	가정, 지역 사회와 연계 실시	프로젝트 등의 특정 활동 주제로 집중적으로 실시	외부강사와 협력하여 특별 활동으로 실시	일과 중 기후 변화교육이 필요한 상황 발생시 상시로 실시	자유놀이 시간을 활용한 교육활동으로 실시	계(수)
전체	22.5	32.2	11.0	6.8	21.9	5.6	100.0 (922)
교사 경력							
4년 이하	10.9	37.7	13.7	6.0	27.9	3.8	100.0 (183)
5~9년 이하	21.0	32.5	11.5	9.9	18.7	6.3	100.0 (252)
10~14년 이하	23.8	32.9	9.5	7.1	19.0	7.6	100.0 (210)
15년 이상	30.3	27.8	9.7	4.3	23.1	4.7	100.0 (277)
$\chi^2(df)$	38.957(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영유아 기후변화교육 평가내용의 중요도) 교사들은 영유아 대상 기후변화교육 평가내용의 중요도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가치관 형성’ 29.6%, ‘기후변화에 대한 통합적 이해’ 25.1%, ‘환경 감수성과 배려 태도’ 24.4%, ‘탄소중립의 지속적 실천’ 20.9% 순으로 조사됨.

- 유치원 교사는 ‘환경감수성과 배려 태도’, 어린이집 교사는 ‘환경친화적 가치관 형성’과 ‘기후변화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높게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음.
-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환경 감수성과 배려 태도’, 사립유치원은 ‘탄소중립의 지속적 실천’, 국공립어린이집은 ‘환경친화적 가치관 형성’, 국공립이외의 어린이집은 ‘기후변화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유의하게 높게 응답함.

〈표 68〉 영유아 기후변화교육의 평가내용 중요도

단위: %(명)

구분	기후변화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	탄소중립의 지속적 실천	환경 감수성과 배려의 태도	환경친화적인 가치관 형성	계(수)
전체	25.1	20.9	24.4	29.6	100.0 (922)
기관1					
유치원	17.8	25.7	30.2	26.4	100.0 (421)
어린이집	31.1	17.0	19.6	32.3	100.0 (501)
$\chi^2(df)$	37.752(3)***				
기관2					
공립유치원	13.3	23.7	35.9	27.0	100.0 (270)
사립유치원	25.8	29.1	19.9	25.2	100.0 (151)
국공립어린이집	25.0	24.0	21.0	30.0	100.0 (100)
그 외 어린이집	32.7	15.2	19.2	32.9	100.0 (401)
$\chi^2(df)$	60.668(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바. 기후변화 교육 및 정책 요구

□(영유아 기후변화교육 실시의 어려움) 교사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기후변화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교사 자신의 지식 및 기술 부족’(29.7%)을 응답함. 다음 순으로 ‘영유아의 실제 삶과의 연결성 확보 어려움으로 동기화 부여 문제’(24.1%), ‘업무량 과다로 인한 시간 부족’(20.2%), ‘교수학습 자료 및 자원 부족’(11.1%) 조사됨.

- 유치원 교사들은 ‘업무량 과다로 인한 시간 부족’, 어린이집 교사들은 ‘영유아의 실제

삶과의 연결성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동기화 부여 문제'를 그 다음 순의 어려움으로 응답하여 차이가 있음.

〈표 69〉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기후변화교육 실시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1순위)

단위: %(명)

구분	불안감 및 공포 조성 문제	교사 자신의 지식 및 기술 부족	(영)유아의 실제 삶의 연결성 확보 어려움으로 동기화 부여 문제	워크숍 / 폭 넓은 연수기회 부족	업무량 과다로 인한 시간 부족	연수 안내에 대한 정보 부족	교수학습 자료 및 자원 부족	기타	계(수)
전체	4.8	29.7	24.1	5.5	20.2	4.2	11.1	0.4	100.0 (922)
기관1									
유치원	5.2	27.3	20.0	7.1	23.8	3.8	12.1	0.7	100.0 (421)
어린이집	4.4	31.7	27.5	4.2	17.2	4.6	10.2	0.2	100.0 (501)
$\chi^2(df)$	18.296(7)*								
기관2									
공립유치원	4.1	27.4	18.9	8.5	22.6	3.7	13.7	1.1	100.0 (270)
사립유치원	7.3	27.2	21.9	4.6	25.8	4.0	9.3	0.0	100.0 (151)
국공립어린이집	2.0	29.0	35.0	4.0	17.0	2.0	10.0	1.0	100.0 (100)
그 외 어린이집	5.0	32.4	25.7	4.2	17.2	5.2	10.2	0.0	100.0 (401)
$\chi^2(df)$	36.914(2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교사들의 기후변화 정책(적응과 완화) 관련 의견

- ‘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교사 응답은 54.8%, ‘적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은 45.2%로 나타남. 어린이집교사들이 유치원 교사보다 ‘적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높음.

〈표 70〉 정책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교사)

단위: %(명)

구분	적응	완화	계(수)
전체	45.2	54.8	100.0 (922)
기관유형			
유치원	40.4	59.6	100.0 (421)
어린이집	49.3	50.7	100.0 (501)
$\chi^2(df)$	7.350(1)**		
설립유형			
공립유치원	38.1	61.9	100.0 (270)
사립유치원	44.4	55.6	100.0 (151)
국공립어린이집	43.0	57.0	100.0 (100)
그 외 어린이집	50.9	49.1	100.0 (401)
$\chi^2(df)$	10.866(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1.



- 정책개발 중 ‘적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응에 집중하는 방향이 적합하다’라는 응답이 32.9%로 가장 높음.
- ‘완화정책보다 적응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응답이 22.5%, 완화 정책과 관련된 기술(예, 탄소저감 기술 등)이 국내에는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20.6%, ‘완화정책보다 적응정책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적을 것 같아서’는 13.4%, 기타는 1.7%임.

〈표 71〉 적응- 응답한 이유(교사)

단위: %(명)

구분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불가능하므로 적응에 집중하는 방향이 적합	완화 정책보다 적응정책이 경제적비용의 소모가 적을 것 같아서	적응 정책에 들어가는 노력이 완화보다 적을 것 같아서	완화정책보다 적응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	완화 정책과 관련된 기술(예, 탄소저감 기술 등)이 국내에는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기타	계(수)
전체	32.9	13.4	8.2	22.5	20.6	2.4	100.0 (417)
기관1							
유치원	37.1	14.1	8.8	17.1	18.8	4.1	100.0 (170)
어린이집	30.0	13.0	7.7	26.3	21.9	1.2	100.0 (247)
$\chi^2(df)$	9.622(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정책개발 중 ‘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교사)로, ‘근본적인 기후변화 원인에 대한 해결이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68.1% ‘관련 기술 개발(예, 탄소저감 기술, 전기차 등)이 활성화될 것 같아서’가 20.8%, ‘적응정책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라는 응답이 6.5%,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는 4.0%, 기타는 0.6%로 나타남.

〈표 72〉 완화- 응답한 이유(교사)

단위: %(명)

구분	근본적인 기후변화 원인 해결이라 생각해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적응 정책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관련 기술 개발(예, 탄소저감 기술, 전기차 등)이 활성화 될 것 같아서	기타	계(수)
전체	68.1	4.0	6.5	20.8	0.6	100.0 (505)
기관1						
유치원	72.1	1.6	7.6	18.3	0.4	100.0 (251)
어린이집	64.2	6.3	5.5	23.2	0.8	100.0 (254)
$\chi^2(df)$	10.825(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응답자 교사 중 87.9%는 영유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

- **아동 대상으로 추진할 적절한 적응 정책**으로 교사들은 ‘아동 관련 시설 및 인프라지원 (유치원, 어린이집 리모델링, 노후 에어컨 및 난방시설 교체)’이 30.6% ‘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강화’ 38.9% ‘아동 대상 기후변화교육’ 37.0% ‘부모대상 기후변화교육’ 24.3% 순으로 응답함. ‘주거취약계층 아동 대상 주거 지원 강화’는 0.2%로 가장 낮게 응답됨

〈표 73〉 아동 대상 적절한 적응 정책에 대한 교사 의견 (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영유아 대상 관련 교육	부모 대상 관련 교육	아동 관련 시설 및 인프라 지원(유치원, 어린이집 리모델링, 난방시설 교체, 실내 놀이터 확충)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주거취약계층 영유아 대상 주거 지원 강화	계(수)
전체	37.0	24.3	30.6	7.8	0.2	100.0 (810)
기관1						
유치원	40.2	25.4	27.6	6.8	0.0	100.0 (366)
어린이집	34.5	23.4	33.1	8.6	0.5	100.0 (444)
$\chi^2(df)$	6.498(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일반국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에 대해 각 주체별로 교사들이 평가한 결과**, 시민단체가 평균 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시도교육청 2.9점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2.8점 > 일반국민과 기업이 각각 평균 2.7점으로 낮음.

〈표 74〉 각 주체들의 기후변화 대응의 노력 평가(교사)

단위: %(명), 점

구분	부정 응답	매우 못하고 있음	못하고 있음	보통	잘하고 있음	매우 잘하고 있음	긍정 응답	계(수)	평균
1. 중앙정부	31	9.0	22.0	55.2	11.9	1.8	13.7	100.0 (922)	2.8
2. 지방자치단체	27.8	6.7	21.1	57.4	12.7	2.1	14.8	100.0 (922)	2.8
3. 시도교육청	26.1	6.0	20.1	58.5	13.4	2.1	15.5	100.0 (922)	2.9
4. 기업	33.2	11.2	22.0	51.8	13.2	1.7	14.9	100.0 (922)	2.7
5. 시민단체(환경단체)	11.4	2.2	9.2	49.1	33.2	6.3	39.5	100.0 (922)	3.3
6. 일반국민	34.5	5.9	28.6	55.3	9.0	1.2	10.2	100.0 (922)	2.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영유아기 기후환경교육을 위한 가장 적합한 주체**에 대한 교사의 응답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27.8%로 가장 높고, ‘중앙부처’ 23.5%, ‘유치원과 어린이집’ 22.8%, ‘가정’ 15.8%, ‘시민단체(환경단체)’ 9.8%, ‘기타’ 0.3%순임.

- 교사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 15년 이상 경력교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가장 적절한 교육주체라 가장 많이 응답(30.3%). 또한, 교사 경력이 4년 이하인 경우는 교육주체별로 상대적으로 균형있게 응답하였으며, 10년-14년 이하 경력교사가 특히 지자체와 교육청을 다른 경력교사집단에 비하여 높게 응답함.

〈표 75〉 가장 적합한 영유아기 기후환경교육 주체(교사)

단위: %(명)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시민단체 (환경단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정	기타	계(수)
전체	23.5	27.8	9.8	22.8	15.8	0.3	100.0 (922)
교사 경력							
4년 이하	18.6	25.7	14.8	22.4	18.6	0.0	100.0 (183)
5~9년 이하	23.8	27.8	9.9	19.4	19.0	0.0	100.0 (252)
10~14년 이하	25.7	33.3	8.1	17.1	15.7	0.0	100.0 (210)
15년 이상	24.9	24.9	7.6	30.3	11.2	1.1	100.0 (277)
$\chi^2(df)$	37.001(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가장 적합한 영유아기 기후환경교육 부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중앙부처 중 영유아기 기후환경교육의 주체로 가장 적절한 부처는 ‘환경부’가 84.8%로 압도적으로 높고, ‘교육부’ 12.9%, ‘보건복지부’가 1.8%임. 이는 부모의 응답 경향성과 유사함.

〈표 76〉 중앙부처 중 영유아기 기후환경교육의 주체로 가장 적절한 부처(교사)

단위: %(명)

구분	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타	계(수)
전체	84.8	12.9	1.8	0.5	100.0 (217)
기관 유형					
유치원	82.0	16.9	1.1	0.0	100.0 (89)
어린이집	86.7	10.2	2.3	0.8	100.0 (128)
$\chi^2(df)$	3.081(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5. 영유아 부모와 교사 조사결과 비교

□ 이상의 영유아 부모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기후변화 관련 인식과 기후변화 감수성, 지식과 실천 역량, 지원 요구 등 공통적으로 조사한 문항에 대한 결과들을 정리,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77〉 기후변화 관련 영유아 부모와 교사 조사결과 요약 비교

영역	번호	세부 문항	부모	교사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1	기후변화문제 관심도	74.7% (평균 3.9점/5점 만점)	82.2% (평균 3.9점/5점 만점)
	2	기후변화의 원인 인지	59.1% (평균 3.6점)	61.1% (평균 3.6점)
	3	기후문제 해결방법 인지	49.1% *9.3%의 부모는 모른다고 응답	53.5% * 7.4%의 교사는 모른다고 응답
	4	사람들의 노력으로 기후문제 해결 기대	긍정 61.8%, 부정 19.7%	긍정 82.0%, 부정 6.3%
	5	기후문제의 심각성	81.7%(심각한 편 60.4%, 매우 심각 21.3%) (평균 4.0점)	92.4%(심각 50.2%, 매우 심각 42.2%) (평균 4.3점).
	6	기후변화의 중요성	81.8%(중요한편 51.3%, 매우 중요 30.5%) (평균 4.2점)	92.8%(중요한 편 45.7%, 매우 중요 47.1%) (평균 4.4점)
	7	기후변화로 인한 자녀/미래세대 피해 정도	93.5% (평균 4.4점)	96.8% (평균 4.8점)
	8	자녀세대가 기후변화로 향후 가장 크게 피해를 보게 될 영역	건강(83.4%)>고용 및 경제활동(7.0%)>주거(5.7%)>교육(2.3%)	‘건강’(89.6%)> ‘주거’ 4.0%> ‘고용 및 경제활동’ 3.7%> ‘교육’ 1.6%,
기후변화 감수성, 지식, 실천역량	9	기후변화 감수성	(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평균 4.3점) (최저) ‘나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평균 3.5점), ‘나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기후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평균 3.5점)	(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평균 4.5점) (최저) ‘나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기후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평균 3.7점), ‘나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평균 3.8점)
	10	환경을 위한 행동 실천	(최고) 산이나 공원 등 자연공간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84.0%)(평균 4.2점) (최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36.7%)(평균 3.1점)	(최고) ‘산이나 공원 등 자연공간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93.4%)(평균 4.5점) (최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32.8%)(평균 3.0점)
	11	자녀와 함께하는 실천	(최고) 자녀가 기후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 나에게도 중요하다’ 66.6%/평균 3.7점 (최저) ‘나는 평소 자녀와 기후변화나 기후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29.9%/평균 2.9점)	(최고) ‘영유아가 기후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 나에게도 중요하다’ 78.9%/ 평균 4.0점 (최저) 나는 평소 영유아들과 기후변화나 기후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 58.7%/평균 3.0점

영역	번호	세부 문항	부모	교사
기후변화 교육 및 관련 정보	12	영유아기 기후변화교육의 필요성	85.0%(필요 37.2%, 매우 필요 47.4.8%(평균 4.3점)	90.9%(필요 47.7%, 매우 필요 43.2%) (평균 4.3점)
	13	필요한 기후변화교육 형태	‘일상생활 속 체험활동’ 85.6% > 놀이활동 51.6% >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연계 프로그램 28.5%	일상생활 속 체험활동 63.9% > 놀이활동 16.6% > 부모와 함께 가정연계 프로그램 12.3%
	14	기후환경교육 받은 경험	있다 49.0%, 없다 26.0%, 모름 25.0%	연수경험 있다 27.8%, 없다 72.2%
	15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받은 기후환경교육 프로그램 유형	‘체험활동’ 60.2% > ‘놀이활동’(54.8%), 지식전달 교육(49.7%) >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 연계 프로그램’(18.0%)	-
	16	기후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 만족도	만족 53.5% > 보통 42.5% (평균 3.5점) *불만족 이유: 지나치게 지식전달 위주 교육(27.8%), 기후환경교육과 연관성 낮음(27.8%)	-
정책 방향과 지원 요구	17	정책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 적응과 완화	완화 58.2% > 적응 41.8% 적응 중점 이유]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응에 집중하는 방향이 적합하다’ 32.2% > 완화정책보다 적응정책에 들어가는 국민들의 노력이 적을 것 같아서’ 22.2% 완화 중점 이유] ‘근본적인 기후변화 원인에 대한 해결이라고 생각해서’ 64.5%	완화 54.8% > 적응 45.2% 적응 중점 이유]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응에 집중하는 방향이 적합하다’ 32.9% > 완화정책보다 적응정책에 들어가는 국민들의 노력이 적을 것 같아서’ 22.5% 완화 중점 이유] ‘근본적인 기후변화 원인에 대한 해결이라고 생각해서’ 68.1%
	18	아동 대상 추진할 기후 적응정책	‘아동 관련 시설 및 인프라지원(유치원, 어린이집 리모델링, 노후 에어컨 및 난방시설 교체) 61.6% > 아동 대상 기후변화교육 56.7%	‘아동 관련 시설 및 인프라지원(유치원, 어린이집 리모델링, 노후 에어컨 및 난방시설 교체) 30.6% > 아동에 대한 건강 관리 지원 강화 38.9%
	19	주체별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한 평가	시민단체 평균 3.1점 > 일반국민 2.7점 > 시도교육청과 기업 각각 2.6점 > 지방자치단체 2.5점 > 중앙정부 2.4점	시민단체 평균 3.3점 > 시도교육청 2.9점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각각 2.8점 > 일반국민과 기업 각각 2.7점
	20	가장 적합한 영유아기 기후환경교육 주체	유치원과 어린이집 47.7% >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24.1% > 중앙부처 17.8% > 시민단체 (환경단체) 5.2% > 가정 4.9%,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27.8% > 중앙부처 23.5% > 유치원과 어린이집 22.8% > 가정 15.8% > 시민단체(환경단체) 9.8%
	21	가장 적합한 기후환경교육 담당부처	환경부 63.9% > 교육부 23.9% > 보건복지부 11.7%	환경부 84.8% > 교육부 12.9% > 보건복지부 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부모 및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식 및 실태조사」의 결과임.



6. 정책적 제언

□ 영유아 교사 대상 기후변화교육 제공 및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 영유아 기후변화교육 실시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교사 자신의 지식과 기술 부족'으로 조사됨.
- 가장 필요한 연수주제는 기후변화의 문제, 기후변화교육의 필요성, 중요성
- 영유아교사 양성교육에 필수과목으로 포함
- 영유아 교사 연수/보수교육 강화(특히, 어린이집 교사), 자격연수에 포함.
* 최근 5년간 기후변화 관련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연수 횟수는 평균 1.9회에 불과

□ 영유아 관련 시설 인프라 지원 강화

- 어린이집과 유치원 리모델링, 노후시설 기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 영유아 부모 대상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강화

- 요구되는 기후변화 감수성과 지식, 실천역량의 구체화 및 부족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가정연계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적 접근

□ 영유아 대상 국가수준의 기후변화교육 프레임 제시 및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포함

- 영유아기 기후변화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의 전반적인 Framework 제시 필요
- 상기 Framework를 개정 누리과정 및 표준보육과정과 연계, 명시

□ 기존 기후정책 기본계획과 법에 영유아 부문 지원 명시 (실행과제 구체화)

- 환경부 중심,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심의 기후변화교육 실시
- 영유아 대상 기후변화교육 모니터링단 운영 및 기후변화교육의 효과성 평가 등

□ 지역의 유관 시민단체와 어린이집/유치원 네트워킹 방안 모색

02

발표

미래세대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영유아 주류화 전략

정 다 운 연구위원
(한국환경연구원)

02

발표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영유아 주류화 전략

정 다 운 연구위원
(한국환경연구원)

정책토론회 (2023.05.18)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영유아 주류화 전략

한국환경연구원 정다운 연구위원



한국환경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육아정책연구소
Early Childhood Policy Research Center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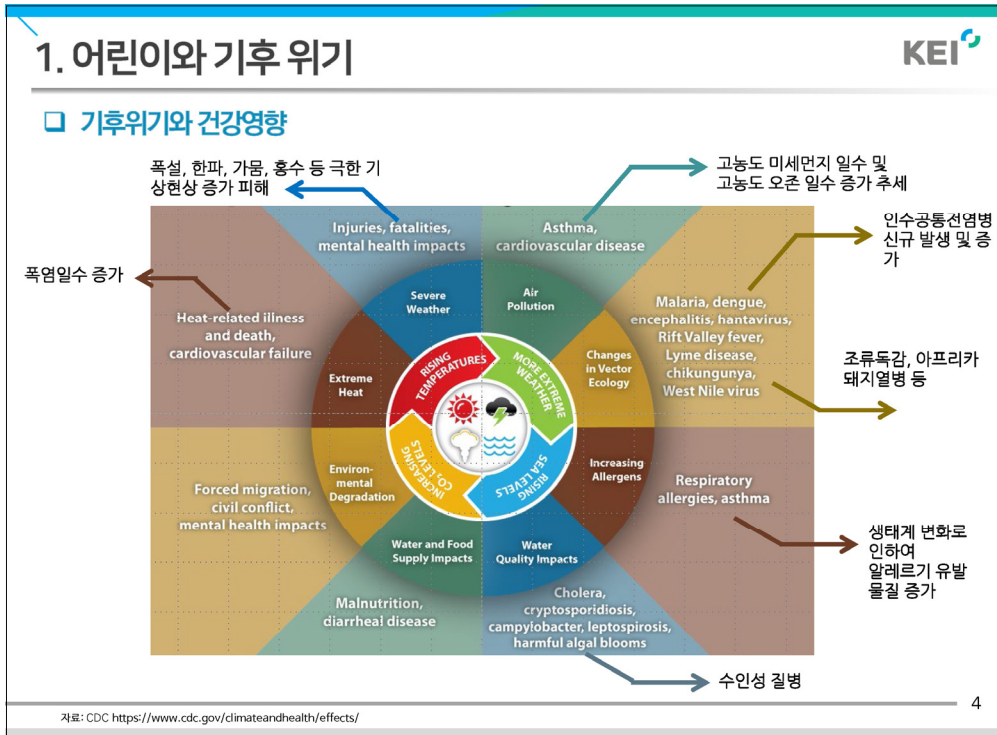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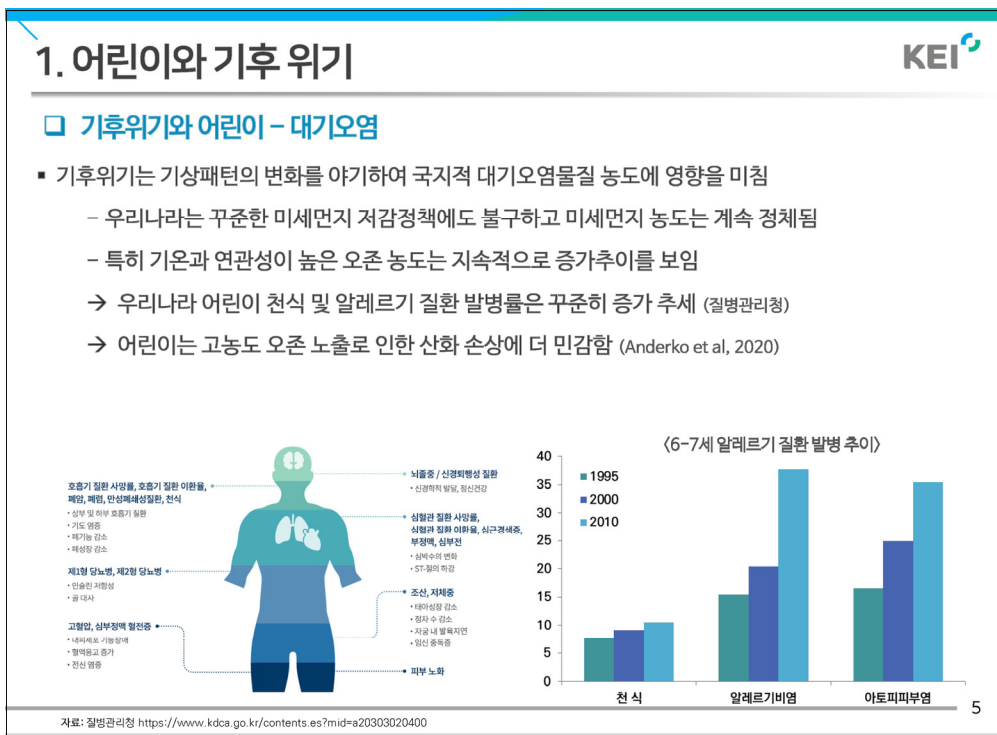
- 1 어린이와 기후위기
- 2 어린이(영유아) 기후변화 적응정책 동향
- 3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어린이(영유아) 주류화 전략



1 어린이와 기후 위기

2

3



1. 어린이와 기후 위기

□ 기후위기와 어린이 - 정신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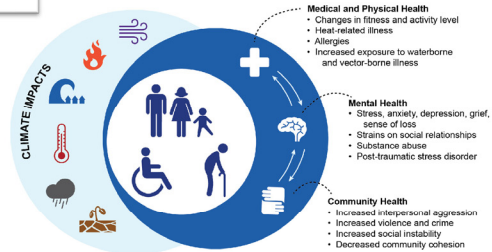
- 기후위기가 어린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는 최근 연구 본격적으로 진행됨
 - 극한 기상현상을 경험한 어린이는 불안감, 우울증, 공포증, PTSD 등을 경험함 (Clemens et al, 2020)
 -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은 동시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공포, 우울증 등을 야기함 (Burke et al, 2018)

HEALTHCARE MARCH 3, 2020 / 9:02 AM / UPDATED 3 YEARS AGO

One in five UK children report nightmares about climate change

By Thomson Reuters Foundation, Thomson Reuters Foundation

〈기후변화가 신체, 정신,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료: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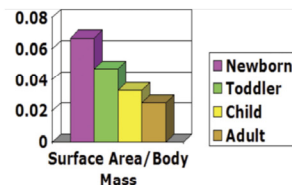
6

1. 어린이와 기후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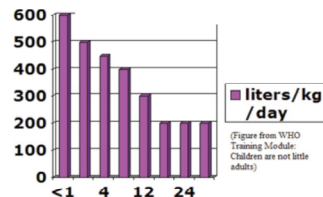
□ 어린이의 취약성(민감성)

- 어린이의 민감성은 생물학적, 행동학적 조건에 기인함
 -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
 - 높은 대사량과 호흡량, 불안정한 면역체계 등으로 인해 성인에 비해 환경요인에 더 민감함
 - 성인과 다른 어린이의 행동 패턴은 어린이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증가시킴
 - 또한 지속적인 발달 및 성장, 그리고 긴 미래 생존년수로 인해 태아, 영유아 시기의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는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건강영향을 초래함

〈무게 대비 표면적〉



〈일일 산소 호흡량〉



자료: WHO Training Module: Children are not little adults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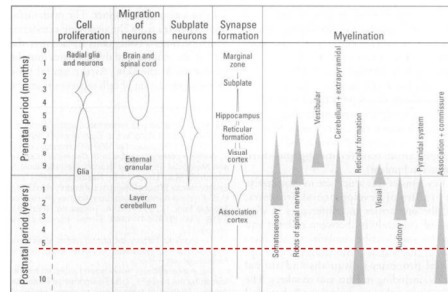
7

1. 어린이와 기후 위기

KEI

□ 어린이의 취약성(민감성)

- 어린이는 성인에 비하여 기후변화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음
 - 어린이는 신체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홍수, 가뭄, 폭염 등 이상 기상현상에 대한 대응력 및 생존력이 떨어짐
 - 어린이는 생리적 차이로 인하여 성인보다 극한 기온변화로 인한 타격에 더 쉽게 영향을 받음
 - 어린이는 면역력이 완전히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수인성, 감염성 등)에 더 취약함
 - 생애 초기(영유아) 시기 노출은 생애 전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



〈태아/영유아 신경발달〉

자료: Rice and Barone (2000)

8



85

미래세대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어린이와 기후 위기

KEI

- 환경약자인 어린이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담론이 국내외에서 중요하게 부각됨
- 기존 정책은 어린이를 취약계층의 일부로 규정하고 취약집단 지원을 위한 거시적인 전략을 제시함
- 미취학 어린이(영유아)는 특히 신체 발달(성장)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므로 기후위기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평생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early life exposure, later life effects
- 하지만 취학 전 영유아는 공교육체계에 포함되지 않고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현재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어린이 민감성(child-sensitivity)을 분석하고 적응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유아 중심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제시가 필요함

9

1

2

어린이(영유아) 기후위기 적응정책 동향

3

2. 어린이 기후위기 적응 정책 동향

□ 국내 정책 동향-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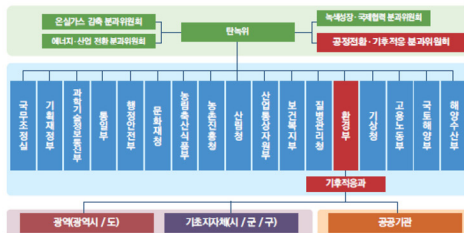


그림 2. 대한민국 적응 추진 체계도

표 3. 제3차 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이행과제

정책기조	정책목표	이행과제
기후리스크 적응력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한 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물수 관리 기후대응력 제고 및 수자원 다변화로 물안보 강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건강한 물 환경 조성
	생태계 건강성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생태계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대응 기반 강화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통한 생태계 건강성 유지 이상기후로 인한 생태계 위해 재난 관리 강화
	전 국토의 적응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 연안 기후변화 대응 기반 강화 지역 중심 기후탄력성 관리 기반 확대 및 강화 시정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적응력 제고 기후탄력성 제고를 위한 영향 평가 기반
	지속가능한 농수산 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적응 농수산 생산기반 강화 안전한 농수산 확보 및 기후변화 적응 농수산 생산기반 구축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건강피해 사전 예방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대응 강화 기후탄력성 향상을 통한 건강 보호 신산업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산업 및 에너지 분야 적응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력적 에너지 공급 체계 에너지 효율화 및 공급원 다변화 기후변화 감시정보 다변화
	종합 감시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유입정보 감시 역량 강화 감시 기반 기상예측 대응역량 강화
	사나운 기후 예측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및 활용 기후변화 예측기술 고도화 대응 기후 예측정보 활용역량 강화
적응 주류화 실현	평가도구 및 정보제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 도구 고도화 기후변화 적응정보 관리체계 마련 및 정보 확산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에 확보
	기후적응 추진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적응 추진 기반 강화 기후변화 적응 전략에 구축 기능 강화
	기후탄력성 제고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단위 기후탄력성 제고 사업 추진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심 보호 강화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및 사업 육성
	기후적응 협력체계 구축 및 인식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정에 부합하는 신기후대기 대응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제도 구축 기후변화 적응 인식 제고 및 확산

자료: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2023)

2. 어린이 기후위기 적응 정책 동향

KEI

□ 국내 정책 동향-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1~2025)

- 기후친화형 어린이 놀이쉼터 조성사업 및 모델 마련
 - 열적으로 안전한 야외 놀이쉼터 조성을 위한 계획·설계요소, 조성방법, 관련기술 및 설치·관리사항 등 제시
- 어린이, 저소득층 대상 폭염·한파 지원사업
 - 어린이 놀이터 그늘막 설치 지원(58개소)



자료: 경희철 외(2019)

12

2. 어린이 기후위기 적응 정책 동향

KEI

□ 국내 정책 동향-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1~2025)

- 공공건축물 및 및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하여 국·공립 어린이집(440개소) 신축
- 폭염·한파 등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컨설팅, 실내환경개선, 환경성 질환 진료 지원
 - 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 교체, 공기청정기 설치 등
- 정보 공유 & 교육
 - 기후보건 관련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 환경보건콘서트(비대면 방식의 쌍방향 소통) 및 유치원,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맞춤형 환경보건교육 실시
 - 유·초·중등 교육과정에 적용 가능한 기후변화 교육자료(온·오프라인 프로그램, 교재, 교구 등) 개발 및 보급
 - 교육부와 협의하여 창의적 체험활동과정(초등), 자유학년제(중등) 등 일선학교에서 활용
 - 생애주기별 탄소중립 생활실천 교육 지원체계 마련
 - 국가환경교육센터와 연계 국내외 교육 실태 및 사례 조사·분석을 통한 콘텐츠, 교육 등 지원방안 용역 추진

13



2. 어린이 기후위기 적응 정책 동향

□ 국내 정책 동향-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1~2025)

▪ 시사점

- 어린이 관련 대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책이 대부분임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대책은 시설 및 교육 분야에 한정
 - 교육부 연계 세부 시행계획은 존재하지만 영유아 대상의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관련 계획 부재
 - 보건복지부의 세부시행계획에서 어린이(영유아) 대책 부재

2. 어린이 기후위기 적응 정책 동향

□ 국내 정책 동향-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광역시

지자체	구분	주요 내용	지자체	구분	주요 내용
서울	어린이 활동공간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와 점검 및 교육 홍보 • 어린이활동공간 내 시설 마감재, 도료, 비석재 등 중금속 검사	대전	어린이 활동공간	-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교육	-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친환경 시설 개선 지원 • 어린이집 환경을 환경교육, 안전교육,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 검사 및 분석 • 시설물 환경관리 및 개선방안 안내 및 교육 실시 • 환경개선 후 시설 개선이 필요한 100개소에 친환경시설(벽지, 장판 등) 개선 지원		취약계층 대상	- 취약계층이용 공공시설 그린리모델링 사업 - 취약계층 실내환경유해인자 모니터링 - 노후 가정정보일터를 친환경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지원
	대기오염 (미세먼지)	-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 어린이집 학생, 보육교사, 어린이놀이터 관리자 등 대상 환경보건안전 교육 • 환경호르몬 교육 및 홍보용 매뉴얼, 어린이 동영상 제작 및 보급 • 지역아동센터 환경호르몬 예방 인형극 공연		교육	- 미세먼지 스쿨운영 및 홍보 추진: 아성동울 및 자연생태계에 대한 관심 제고 - 대전환경교육센터 운영 지원: 기후변화 대응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맞춤형 정보제공 -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등 기후변화 교육 지원: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추진 등
	취약계층 대상	- 대기오염 취약지역을 고려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및 지원 확대 -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강화 • 미세먼지 취약계층 대상 행동매뉴얼 보급 • 인접군 주위보 발령시 취약계층 대상 보건용 마스크 보급 •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질환	-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예방교육 및 홍보 등 -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
부산	대기오염	- 폭염대비 건축물 온도 저감 사업: 취약계층 콜루프 지원사업 추진 -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기후 관련 질환 감시체계 운영	울산	취약계층 대상	-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속 추진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콜루프, 플링포그 조성 등 -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물을 그린리모델링: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실내공기질 개선
	취약계층 대상	- 대기오염 농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평가		교육	- 취약계층 기후적응 건강 매뉴얼 교육 홍보 추진 - 기후변화 적응 교육 홍보 사업 지속 추진
	제품 및 시설	- 품질 불량 어린이제품 유통 단속 및 행정 처분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 - 교육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매년 1회, 여름철, 겨울철)		질환	- 아토피 클리닉 운영, 코호트조사 DB 구축 등 -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 예방교육 및 홍보 등
대구	교육	- 안전 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대상 예방자원의 안전 교육 - 기후-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세종	취약계층 대상	- 취약계층을 위한 실내공기질 개선: 환경유해인자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친환경 벽지 및 장판교체 등
	취약계층 대상	- 시민안전보험 사업 및 재해구조기금 관리 - 폭염 대비 주거환경개선 사업: 콜루프 사업 확대 및 폭염 취약 노후주택주주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보급 지원 등		교육	- 폭염 대비 세부적인 매뉴얼 작성 후 교육 홍보 실시 -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실시 -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숲 체험교육 실시
	어린이 활동공간	- 기후친화형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 맞춤형 취약계층 실내환경개선사업: 어린이집 이중창 교체 등			
광주	취약계층 대상	- 병문간관리사업: 취약계층 대상자 폭염 및 한파 대비 정보 전달 체계 구축			
	대기오염 (미세먼지)	- 어린이집 등 35개소에 미세먼지 저감 회피시설 69기 설치지원			
	질환	-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 및 인종 지원, 일제교기질환 예방관리 교육			
	취약계층 대상	- 실내 주거환경 개선, 취약가구 밀집지역 폭염대비 조성 등: 어린이 공원 등			

2. 어린이 기후위기 적응 정책 동향

□ 국내 정책 동향- 영유아 대상 기후위기 관련 사업

■ 국가환경교육센터

- 유아환경교육관 운영: 수도권, 충북권, 충남권 각각 1개소 운영
- 환경교육 교구 대여: 영유아 대상은 우수환경도서 대여
- 탄소중립 환경교육 자료 제공



충북권(충북권 유아환경교육관) **유아**
2023년 [3월~5월] 쓰레기가 아니라고? (자관순환)
교육시간 : 120분
신청기간 : 수시
교육시간 : 오전(10:00), 오후(13:00)



충북권(충북권 유아환경교육관) **유아**
2023년 [6월~8월] 초록 에너지를 찾아라! (친환경 에너지)
교육시간 : 120분
신청기간 : 수시
교육시간 : 오전(10:00), 오후(13:00)



충북권(충북권 유아환경교육관) **유아**
2023년 [9월~11월] 동물들의 집이 사라졌대!(공생과 생물다양성)
교육시간 : 120분
신청기간 : 수시
교육시간 : 오전(10:00), 오후(13:00)



충남권(충남권 유아환경교육관) **유아**
[자연환경] 자연과 만나는 아이
교육시간 : 90분
신청기간 : 수시
교육시간 : 오전(10:30), 오후(13:00)



수도권(수도권 유아환경교육관(비대면)) **유아**
[7월] 비대면 환경교육카드(물-1곳 추가점수)
교육시간 : 90분
신청기간 : 수시
교육시간 : 오전(09:00)

자료: 환경교육 포털

18

2. 어린이 기후위기 적응 정책 동향

□ 국내 정책 동향- 영유아 대상 기후위기 관련 사업

■ 유아교육진흥원

구분	지역	교육명	주요 내용
실험/체험	서울	겨울체험교육	- 온도차이에 따라 변화하는 크레용 실험을 통한 생태 놀이 등
	강/도	친환경 사능자 체험	- 친환경 자동차를 통해 환경교육(저탄소 녹색 실천 교육) 및 교통기관 이용규칙을 배움
	광주	희망씨앗 나눔데이	- '씨앗 및 재생에너지 활용 놀잇감 꾸러미' 전달
	울산	독특이코스(생각마을)	- 21개의 코스를 따라 체험: 자연재해와 멸종위기 동물들에 대한 영상물 시청 등
	부산	리사이클링 팝업북 만들기	- 현 책을 새로운 책으로 탄생시키는 재활용 프로그램(탄소배출 저감)
	대구	지구를 살려라!	- 콘텐츠를 활용한 지구의 오염수지 확인, 쓰레기 줄기 및 분리수거 체험
		자전거를 타면 지구가 튼튼	- 에너지 절약방법/에너지 지킴이 스티커 만들어 붙이기
	강원도	탄소중립실선	- 전기 절약 스티커 제작, 장난감 교류, 재활용 실천, 텃밭 가꾸기 등
	충청남도	2022 유아체험교육	- 북극곰 모형, 빙하 모형을 활용한 기후변화 교육
	경상남도	생태체험	- 감해체험분원: 나무짜자놀이 등
교육 프로그램	서울	유아 생태전환 교육 프로그램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을 위한 생태전환의 사회적 가치 실천 등
	울산	유아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 기후변화 개념, 실천 및 20가지 실천 놀이 프로그램 제공
	부산	'좋은 부모 자각반' 학부모 연수	- 기후위기 심각성과 변화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강의
		유치원 관리자 리더십 아카데미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적 생태환경교육'에 대한 활동
	대전	유치원 관리자 대상 기후환경 위기 대응 역량강화 연수	- 유치원 내 환경생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역량 신장
	충청북도	탄소를 줄이고 지구를 살리고	- 물 절약, 에너지 절약, 쓰레기 줄이기 등에 대한 방법 교육
	충청남도	유아교육정책 직무연수	- 탄소중립을 주제로 생태전환에 관련된 연수 진행
	서울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	-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천 캠페인
	광주	디지털 탄소발자국 줄이기 캠페인	- 환경교육 학습꾸러미 활용 - 기후위기 비상행동 실천단 활동 등
	제주	나눔이 환경지킴이 활동	- 기후환경 위기대응을 실천하는 모습을 담아 활동 인증
캠페인		작정온도 캠페인	- 여름철 에너지 절약 교육자료 제공
		기후행동 실천 릴레이	- 생활 속 실천할 기후행동 약속을 SNS로 인증하여 공유

19

2. 어린이 기후위기 적응 정책 동향

KEI

□ 국내 정책 동향- 영유아 대상 기후위기 관련 사업

▪ 육아종합지원센터

구분	지역	교육명	주요 내용
실험/체험	강원도	플라스틱 관련	- 일상 속 플라스틱 탐구, 플라스틱 없이 놀기 등
교육 프로그램	서울 도봉구	생애주기별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 기후변화, 멸종위기 동물 관련 동화 교육
	충청남도	기후변화 교육	- 기후변화 정의, 원인 및 현상, 대응(친환경 에너지, 실생활 속 실천) 교육

▪ 시사점

- 기후시민(climate literate citizen) 양성 등 교육 중심의 기후위기 적응 사업을 진행함
- 심각성 일깨우기, 에너지 절약, 쓰레기 줄이기 등

20



2. 어린이 기후위기 적응 정책 동향

KEI

□ UNICEF

▪ UNICEF는 기후위기를 어린이 권리의 위기로 규정함

- 국제사회의 어린이, 청소년과 기후행동 선언(Children, Youth, Climate Action Declaration, 2019, 마드리드) 이끌어냄
- 선언문에서는 어린이 권리 인정, 어린이 참여 강화, 어린이 기준의 주류화, 교육 투자 등을 포함하는 7가지 정책을 고려할 것을 촉구함
- UNICEF는 후속 조치로 선언문에서 제시한 정책 이행을 위한 지침서를 발표하여 참여국가의 선언문 이행을 지원함

Declaration on Children, Youth and Climate Action
A pledge by champion governments to uphold priorities identified by children and youth across the world.



자료: UNICEF (2019)

21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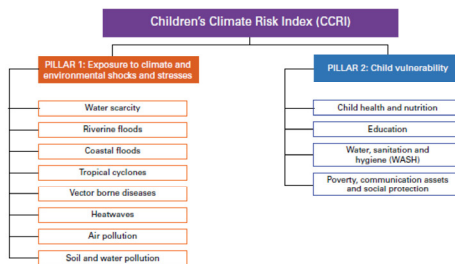
•

미래세대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반영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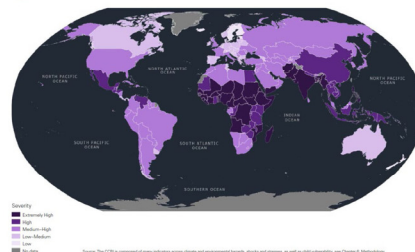
2. 어린이 기후위기 적응 정책 동향

UNICEF

- UNICEF는 기후위기를 어린이 권리의 위기로 규정함
 - 어린이 기후위기 진단 보고서 발간(The Climate Crisis is a Child Rights Crisis, 2021)
 - 향후 5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어린이 발달, 건강, 삶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심각해질 것이라 전망하고 어린이 기후위기 지표(CCRI)를 제시함



Map 2: The Children's Climate Risk Index (CC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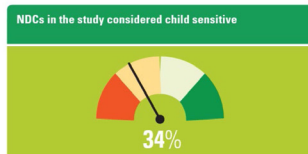
자료: UNICEF (202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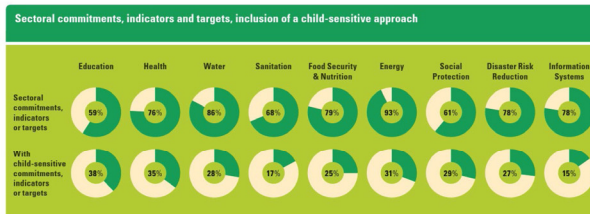
2. 어린이 기후위기 적응 정책 동향

UNICEF

- UNICEF는 기후위기를 어린이 권리의 위기로 규정함
 - 국가별 NDC의 어린이 고려 정책을 분석함
 - 2022년 기준 103국의 NDC 분석 결과 34%만이 어린이를 고려한 NDC를 제시함
-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의 어린이 고려 정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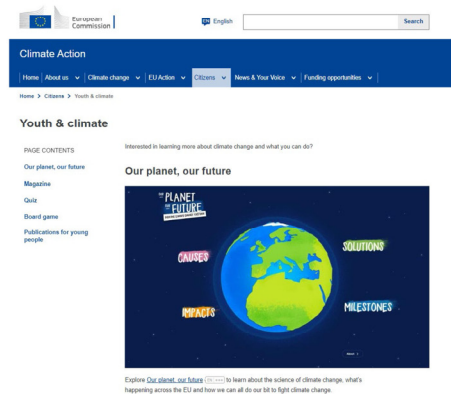
자료: UNICEF (2022)

23

2. 어린이 기후위기 적응 정책 동향

□ EU의 어린이 기후위기 적응정책

- EU는 최근 ‘기후회복적이고 정의로운 유럽으로의 전환(transformation to a climate resilient and just Europe)’을 목표로 하는 전략 발표
 - 환경시스템, 사회경제시스템, 정치시스템의 회복력 강화
 -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여를 높이고, 어린이를 포함하는 취약집단의 기후 재난 대응력 강화
 - 구체적 전략은 국가별 시행계획에 포함
- 기후 시민(climate literate citizen) 양성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 소통·교육 플랫폼 운영



자료: https://climate.ec.europa.eu/citizens/youth-climate_en

24

2. 어린이 기후위기 적응 정책 동향

□ EU의 어린이 기후위기 적응정책

- 영국 교육부는 교육 시스템에서 지속가능 정책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략 발표(2022)
 - 교육 시스템과 사회 돌봄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 시행
 - 전략 수립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인 어린이의 관점을 고려하였음을 명시함
 - 5개 분야에 대한 Action plan을 제시함
 - 전략은 학교 뿐 아니라 **어린이 보육시설을 포함함**

Action area 1: Climate education
 Action area 2: Green skills and career
 Action area 3: Education estate and digital infrastructure
 Action area 4: Operations and supply chains
 Action area 5: International leadership, engagement and next steps

자료: UK Department for Education, "Sustainability and climate change: a strategy for the education and children's services systems"

25



93

미래세대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2. 어린이 기후위기 적응 정책 동향

□ 미국의 어린이 기후위기 적응정책

- 미국은 2021년 법무처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 마련
 - 연방 행정 각 부는 기후이행계획 수립 및 매년 이행성과 보고
- 교육부
 - 학교 및 보육시설의 기후변화 적응 및 회복력 강화, 교육과정 전반에서의 기후위기 관련 내용 연계 및 기후교육 강화, 기후 리터러시 향상을 중심으로 이행계획 수립
 - 예산 증액을 통하여 지속가능성 및 환경교육 강화
 - Green Ribbon Program 운영 확대
 - 교육 톨 개발
 - Day Care Center 일부를 계획에 포함하여 영유아 대상 정책 개발



자료: <https://www2.ed.gov/programs/green-ribbon-schools/index.html>

26

2. 어린이 기후위기 적응 정책 동향

□ 미국의 어린이 기후위기 적응정책

- 환경청
 - 5개 기후적응 우선순위에 어린이를 고려한 정책과정 포함
 - 어린이를 포함한 취약집단을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의 가장 첫 단계에서부터 포함시켜 이들의 이해관계가 가장 우선되도록 함
 - 기후변화가 어린이 건강의 주요 위해 요인임을 인정하고 어린이를 보호하는 정책이 환경청의 정책의 주요요소임을 확인
 - 구체적인 영유아 대상 정책 부재

27

2. 어린이 기후위기 적응 정책 동향

KEI

- 국제 사회는 어린이를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주요 이해관계자로 인식하며, 기후위기 적응정책 수립 과정에서 어린이의 관점이 주요 고려사항으로 반영됨
-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raising climate literate citizen”과 “empowerment of children”으로 수렴됨
- 다만 영유아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child education(교육)’과 ‘child care(보육)’을 함께 주관하는 부처(교육 담당 부처)에서 총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함
- 우리나라도 어린이를 취약계층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현 패러다임에서 어린이가 주요 주체임을 인식하고 어린이의 관점이 충분히 고려된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28



95

• 미래세대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1

2

3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어린이(영유아) 주류화 전략

3.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어린이(영유아) 주류화 전략



□ 모든 정책에 어린이를 포함

▪ 주류화(Mainstreaming)

- 사상이나 학술 따위의 주된 경향이나 갈래가 됨, 또는 그렇게 만들(국립국어원 우리말샘)
- The process of making something start to be considered normal(캠브리지 사전)
- 모든 정책에 특정 아젠다/주제가 충분히(당연히) 고려되는 것

▪ 어린이(영유아) 주류화의 선행 사례들

- UNICEF의 NDC 분석, CCRI
- Children in All Policies: WHO-UNICEF-Lancet Commission
- 유럽, 미국, 캐나다 등 기후위기 적응정책은 모든 적응정책에 어린이의 관점을 고려함
- 현재 모든 정책에서 “취약집단”으로 모호하게 포함되는 “어린이”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30

3.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어린이(영유아) 주류화 전략



□ 어린이(영유아)가 고려된 정책

- 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 어린이(영유아)의 취약성 고려
 - ~ 생후 1,000일 영유아 취약성 관련 데이터의 부재
- 기후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어린이(영유아)가 특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을 특정하고, 어린이(영유아)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 수립
- 나이, 성별, 사회계층을 충분히 고려한 기후위기 이행계획 수립
 - 각 발달단계에서의 기후영향 파악 필요
- 어린이 중심 기후정책 예시
 - 페루: 도시 녹색 공간 조성 계획에 영유아를 위한 공간 포함(Salidas Seguras)
 - 그루지아: 0~8세 및 가족 대상 적응정책 수립 계획
 - 필리핀: 기후재난 대피 공간 조성 시 산모 및 영유아 친화적 공간 마련

31

3.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어린이(영유아) 주류화 전략



□ 기후 리터러시

- 기후 리터러시(climate literacy)
 - 인간이 사회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위기가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
 - 지구의 기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기후에 대한 근거 기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해 의미 있는 소통이 가능하며,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 대하여 정보 기반의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음
 - 어린이(영유아)를 적응정책의 주체로 인식하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어린이(영유아)의 기후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
-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 기후 교육을 단편적으로 진행하는 현 체계가 아닌 기후 이슈가 모든 교육 과정에 녹아있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함

자료: <https://www.climate.gov/teaching/what-is-climate-science-literacy>

32



97

• 미래세대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범형과 과제

*Someday, our children, and our children's children,
will look at us in the eye and they'll ask us. Did we
do all that we could when we had the chance to deal
with this problem and leave them a cleaner, safer,
more stable world?*

(Obama, Climate Action Plan, 2013)

감사합니다.



한국환경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발표 2

NOTE

토론

미래세대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문

이재영 | 교수(공주대학교, 전 국가환경교육센터장)

김대희 | 교수(국립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 한국환경교육학회장)

김정선 | 과장(서울특별시청 기후환경정책과)

염정윤 | 단장(한국환경연구원 환경교육연구단)

01

토론문



기후위기와 지구인 세대의 탄생

이재영 교수

(공주대학교, 전 국가환경교육센터장)

지금 인류는 지난 1만년 동안 겪어본 적이 없는 시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겪게 될 굶주림, 질병, 전쟁과 자연재해는 인류가 말과 글로 남긴 흔적 속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만큼 가혹하고 빈번하고 광범위할 것입니다.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두 분의 발표문에서 다양한 자료와 근거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기후위기로 인해 전 세계의 영유아들에게 이미 미치고 있고 앞으로 미치게 될 영향은 각별한 관심과 대응을 요구하고 있고, 변화도 시작되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좋은 삶에 대해,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해 많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어른과 아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어른들이 여전히 아이들보다 존재적, 인식적, 윤리적, 미학적 차원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 그들에게 명령하고 통제해도 괜찮은 것인가? 그 당위성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아이들이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통해 자립적 삶을 꾸려갈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른과 아이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떤 것인가? 아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의 발명품이라는 아리에스 이야기는 이제 기후위기를 맞아 새로운 맥락에서 토론의 장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입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원칙은 ‘권력의 시선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시선에서’ 모든 상황을 평가, 판단하고, 그에 따라 결정,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간과 시설을 설계할 때는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관리해야 하듯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도 약자의 관점에서 기획, 평가되어야 합니다. ‘주류화’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공감하면서 ‘배려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이 정치권력이나 담당자의 변화와 무관하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고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는 흔히 자신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 등 복잡한 감정을 언어적으로 주고받을 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감정과 생각에 충분히 접근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사람, 추가적인 장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교육의 효과를 평가 할 때는 비디오로 그들의 반응(표정 등)을 녹화하는 등 청소년이나 어른과는 다른 접근법을 도입할 필요도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근본적으로 국가적, 지구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불평등과 이를 재생산하는 경제시스템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아이들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적응적 대책으로 발표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모든 관련 정책과 제도에 아이들의 시선을 주류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아이에게 투여할 수 있는 시간적, 금전적, 심리적, 사회적 자산이 부족한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국가적, 공동체적 수준에서의 특별한 돌봄장치(아동기본소득 도입 및 확대 등)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후위기로 인한 시련이 수십 년에 걸쳐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생태헌법’으로의 개정 등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설계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도 서둘러야 합니다. 이 가운데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무시되었던 자연과 지구의 권리,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 세대의 권리와 함께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유네스코가 제안한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사유와 국유를 넘어 ‘공유(common)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7년 중 5년에 걸쳐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한 강릉지역의 아이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기후변화교육을 할 수 있을 까요? 토론자는 환경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2년 동안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교육표준’을 개발해 왔으며, ‘변혁적 환경역량을 갖춘 지구생태시민’을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10년 뒤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 ‘한국인’이라는 대답보다 ‘지구인’이라는 대답을 듣게 되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허울뿐인 능력주의, 수도권 중심 대학서열체제,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과 입시제도가 먼저 변해야겠지요.

NOTE



02

토론문



‘미래세대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

김 대 희 교수

(국립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 한국환경교육학회장)

저희 한국환경교육학회는 1989년 창립 이후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에 ‘환경’ 과목의 도입, 지자체 마다 결성되어 있는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의 확산에 기여, ‘환경교육법’의 제정 등을 통한 환경교육 의무화 등의 성과가 있기까지 환경부,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 환경교육 단체 등과 협력하여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노력해 온 학술단체입니다. 저의 단체에서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 때문에 기후 변화보다는 위기라는 말을 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47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지구 종말 시계(22년: 자정 전 100초), 1992년에 발표되기 시작한 환경 위기 시계(22년: 9시 28분)에 더하여 2019년에 설치되기 시작한 기후 위기 시계(23년: 1.5℃ 상승까지 6년 91일)가 인류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울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일상엔 관성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많은 환경학자들이 환경 및 기후 위기(지구온난화와 기상재해의 위험성 등)에 대해 경고를 계속해서 제기했었으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합의와 파리기후협약 등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일부 성장론자들의 반대와 환경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환경문제는 더 심각해졌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변화는 매우 더디기만 합니다.

그 결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기후 위기라는 엄청난 재앙이 인류의 눈앞에 다가왔고,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 위기가 특이한 점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기반으로의 전환이나 탄소국경세 등 국가와 산업체들이 탄소 중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상품 수출 등에 있어서 경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래세대들이 기후 위기 행동 등으로 국가와 산업계의 제대로 된 기후 위기 정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즉,

미래세대들과 소비자들이 기후 행동과 탄소 중립 환경교육 활동 등을 통하여 생존권과 환경교육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발표를 하신 육아정책연구소의 문무경 연구위원님의 ‘기후변화 인식과 요구’에 대한 학부모와 유치지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의 설문조사 결과와 한국환경연구원의 정다운 연구위원님의 ‘기후 위기 적응정책의 영유아 주류화 전략’이 강조하고 있는 점도 기후 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영유아들을 중시한 기후 위기 정책이 필요하며, 또한 이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후 위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유아들과 어린이들이 실생활에서 기후 위기에 대해 이해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기후 위기 정책 결정에서 영유아들을 고려하는 것이 핵심적 요소가 되어야 하고, 영유아들이 바람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적 성장의 결과 더 큰 기후 및 환경 재앙으로 돌아오는 현재의 생활 방식을 방지하면서 기후 및 환경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현재까지 살아오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환경의 수용 능력 수준으로 전환해야만 기후 재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에 제시하는 변화의 방향들이 제대로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영유아를 위한 환경 및 기후 위기 정책 또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 영유아(후속세대)들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이 갖추어지는 방향으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즉, 환경 및 기후정책, 그리고 사회의 최고 관심은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과밀화된 생활 방식은 인간과 자연과의 접촉기회를 줄이며, 에너지 낭비적이고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기후 재앙에 대비한 기후 위기 대응 지역사회 발전 정책이 필요합니다. 물질과 에너지 순환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최소한의 생태 발자국을 남기며 생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생태마을 같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지역사회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즉, 영유아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여건과 생활양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 및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 분야 간 협동적 거버넌스 체제가 상시 운영되면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을이나 학교 주변에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숲(또는 자연)체험 교육장이 조성,



운영되기 위해서는 산림청, 교육부, 지자체 및 마을, 관련 사회적 기업, 숲체험 교육 관계자 등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영유아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교육(학습)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교육혁신, 교육관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수의 우수학생 중심의 현재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 개인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교육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학습자들이 지역의 바람직한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교육)해야 합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고, 일자리를 통해서 자아 성숙과 사회에 기여하게 됩니다. 두 번의 인생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은 학습자마다 즐겁고 보람되어야 그 사람의 인생이 즐겁고 보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생태 및 학교 여건과 건전한 협동적인 교육경험 속에서 타인을 돕고, 다른 생명체와 환경을 고려하는 생태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식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주도학습이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생의 입장을 세심히 배려해야 하는 영유아 교육부터 교육대상자가 학습(교육)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관과 교육방식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교육 정의, 기후 및 환경 정의, 에너지 정의, 의료 복지와 문화 혜택 등 바람직한 생활양식이 확산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가 계속해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는 각 (경영) 주체들이 안정적인 친환경적인 순환경제 시스템을 갖추어 생태계와 함께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는 체제입니다. 이러한 사회 체제에서 영유아를 포함한 미래세대들이 즐거운 학습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개척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함양할 수 있는 직업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다양한 친환경 일자리가 지역에 늘어나야 하며, 의료 복지와 문화 혜택의 제공 등 미래세대들이 소외되지 않는 가운데 친환경 일자리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구 및 학습 활동(고학년의 경우 참여, 연구, 창업 활동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어렸을 때 조개와 소라 등을 캐먹고 헤엄치며 뛰놀았던 바닷가 추억을 떠올립니다.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 이런 추억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모니터 화면에만 익숙한 미래세대는 이러한 생태계를 유지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 생태계가 후손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학습 및 환경 여건으로 회복되어야 지속가능한 생활 또한 가능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며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NOTE



03

토론문

영유아를 위한 기후환경 정책

김 정 선 과장

(서울특별시청 기후환경정책과)

1

유아기 대상 체험형 환경교육 추진

기후환경본부 |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정선 ☎2133-3510 환경교육팀장: 이재용 ☎3533 담당: 서미정 ☎3613

미래 세대의 환경 감수성 증진을 위해 어린이집 영아 등 유아기 대상 체험과 놀이 중심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추진

□ 추진배경

- 기존 아동·학생 중심의 환경교육 시행으로 환경교육 사각지대 발생
- 영유아 시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과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여건 조성 필요

□ 추진방향

- 환경교육 기반시설과 유아보육시설을 연계한 맞춤형 환경교육 추진
-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주제로 한 놀이·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23년 추진계획

- (서울시) 환경교육 거점시설을 활용한 찾아가는 환경교육 시행
 - 공동육아방·공동육아나눔터 등 영유아돌봄 사업 시설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놀이형 교육 추진
 - ※ 서울거점시설: 에너지드림센터('12년~, 에너지·기후변화 체험·교육), 기후에너지정보센터('14년~, 기후위기대응 관련 정보제공, 온실가스·쓰레기 감축 등 환경보호 실천 체험 전시)
- (자치구) 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 통한 영유아 맞춤형 교육 확산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과 연계한 놀이·체험교육 운영
 - ▶ '서대문구 유아 대상 찾아가는 교육' 등 우수교육사례 교육센터에 공유·확산

- 자치구 센터 지정 확대('23년 17개소→'24년 전 자치구)하여 교육 접근성 향상
- ※ 기초센터현황: '23년 5월 현재, 11개 자치구 내 12개 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 중

□ 기대효과

- 유아기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서 함양으로 환경시민 육성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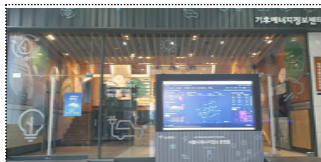
[참고자료] 서울 환경교육 기반 시설 현황

□ (서울) 에너지드림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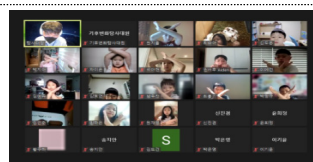
- 시설위치 : 서울시 마포구 증산로 14(평화의 공원 내에 위치)
- 규 모 : 연면적(지하 1층, 지상 3층) 3,777㎡, 대지면적 13,104㎡
- 개 관 일 : '12.12.12.(공사기간 : '08월 11월 ~ '12년 9월)
- 건물특징 : 패시브(에너지저감 기술 70%), 액티브(신재생에너지 기술 30%) 요소가 적용된 제로에너지 건물
- 공간구성
 - 1층(홍보관):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체험, 에너지드림센터 적용기술 소개 등
 - 2층(기후변화배움터): 기후변화 전시관(기후변화 전시·교육 콘텐츠 운영)
 - 3층(체험학습실 및 다목적실): 체험형 에너지·환경교육, 회의 및 휴게공간
- 주요 프로그램: 제로에너지 전시 해설, 환경·에너지 체험교육 등

□ (서울) 기후에너지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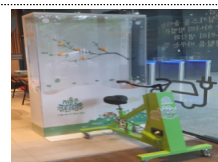
- 시설위치 및 규모: 서소문청사 1동 1층, 55.5㎡
- 개 관 일: '13.4.22.
- 운영방법: 평일, 토요일 9:00~18:00(일요일, 공휴일 휴관)
 - 운영인력: 서울형 뉴딜일자리 2명(센터안내, 프로그램 교육 업무 등)
- 주요 프로그램
 - 기후위기, 온실가스 발생 및 감축정책, 시민실천방안 등 정보제공
 - 청소년, 가족, 시민 대상 기후·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후에너지정보센터(전면)



온라인수업 화면



자전거 포토존(센터 내부)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장 : 김정선 ☎2133-3510 환경협치팀장 : 신은철 ☎3528 담당 : 범종혁 ☎3532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3D펜·프린터 위해성을 홍보하고 안전한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언론보도 등을 통해 3D펜·프린터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안전한 사용방법 안내 필요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1. 9. ~ '22. 8.
- 추진주체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보건분과, 기후환경정책과
- 사업비 : 3,500천원
- 사업내용
 - 3D 펜, 프린터 위해성을 홍보하는 내용의 웹툰 제작
 - 웹툰을 포스터, 소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57개소에 배부

□ 추진경과

- 3D 프린팅 건강 위험성 논의 세미나 개최('21. 9.)
- 3D 프린터 안전관리 개선 방안 토론회 운영('21. 12.)
- 3D 펜·프린터 위해성 홍보 웹툰 제작('22. 2. ~ 8.)

□ 기대효과

- 3D 펜·프린터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안전한 사용 유도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관장 : 최종하 ☎2133-3590 공공건물효율화팀장 : 이원재 ☎9782 담당 : 박철우 ☎3708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준공 후 10년 경과)을 대상으로 단열, 기밀 강화 및 고효율 기자재로 교체하여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

□ 추진배경

- 온실가스배출 저감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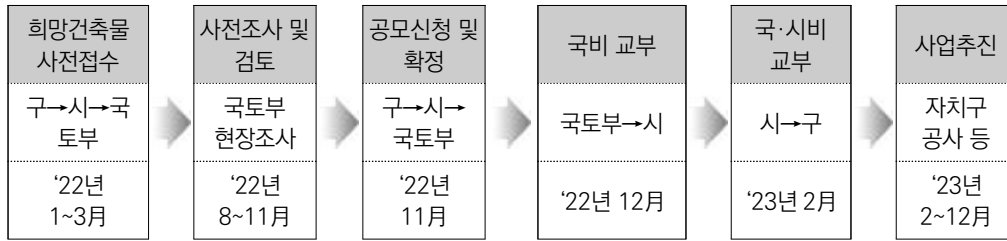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취약계층 이용 및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에너지 성능 개선 및 그린리모델링 저변확산
- 사업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제27조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이하 “운영고시”)
- 사업대상: 10년 이상 경과된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86개소('23년 사업)
- 사업내용: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 현장조사 및 컨설팅 실시 후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외단열, 창호개선, 냉난방 장치 교체 등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 '23년도 사업규모: 26,412백만원(국비 13,206, 시비 7,366, 구비 5,840)
 - 어린이집 85개소: 25,553백만원(국비 12,777, 시비 7,108, 구비 5,668)
 - 보건소 1개소: 859백만원(국비 429, 시비 258, 구비 172)

□ 추진현황('23.5.기준)

- '21년 사업 대상 126개소(공사 완료 122, 사업취소 4)
- '22년 사업 대상 85개소(공사완료 74, 공사중 7, 설계중 3, 사업취소 1)
- '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본격 추진(자치구, '23.2월~12월)
 - 국·공립어린이집, 보건소 86개소 그린리모델링 설계용역 및 공사 시행
 - ※ '23년 그린리모델링 사업 연간 추진계획





- '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희망건축물 접수('23.2월~3월)
 - (사업대상 범위 확대) 기존 사업대상에 도서관, 경로당, 파출소 추가
 - 서울시 총 99개소 신청(어린이집 48 경로당 41 도서관 9 의료시설 1)

□ 기대효과

- 1차 에너지소요량 3,482kWh/m²·년 및 온실가스 배출량 340.2tCO₂eq 절감 예상
 - ※ 개선 전 1차에너지소요량: 13,936kWh/m²·년, 온실가스 배출량: 1,319.2tCO₂eq
 - 1차 에너지소요량: 평균 40.49kWh/m²·년 절감(86개소 기준), 예상 절감률: 24.99%
 -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 3.956tCO₂eq 절감(86개소 기준), 예상 절감률: 25.79%
- 86개소 에너지성능개선으로 식재효과 61,238그루(소나무 기준), 산림조성효과 204,127m², 승용차 대체효과(중형, 휘발유 기준) 152대 절감 효과 예상

4

어린이통학차량 LPG/전기차 전환 지원

기후환경부 친환경차량과장 : 정순규 ☎2133-3580 친환경차량정책팀장 : 권혁영 ☎3582 담당 : 박황현 ☎4412
그린카보급팀장 : 윤원미 ☎3640 담당 : 홍기윤 ☎9776

LPG 및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확대 보급을 통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 건강보호와 수송부분 탄소중립 달성

□ 추진배경

-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인 어린이 건강 보호
- 어린이 통학차량 경유사용 금지('24.1월~)에 따라 LPG 및 전기차 확대 보급 필요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 통학 지원차량
- '23년도 사업규모
 - LPG 어린이 통학차 : 240대 / 1,680백만원
 - 전기 어린이 통학차 : 70대 / 5,250백만원
 - ※ 친환경 어린이통학차 주요 차종



LPG(현대, 스타리아 15인승)



전기(이비온, 이비온 18인승)



전기(비바모빌리티, 브이버스 15인승)

□ 최근 2년간 추진실적

- LPG 어린이통학차 : 332대 중 어린이집 47대 보급(14.2%)
- 전기 어린이통학차 : 77대 중 어린이집 4대 보급(5.2%)

□ 향후계획

-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등으로 인한 출고지연 문제 해소 위해 현대차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로 차량 조기출고 및 신속집행



5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및 컨설팅

기획재정부 생활환경과장 : 허정원 ☎2133-3720 실내공기관리팀장 : 김동환 ☎3625 담당 : 김보영 ☎3628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한 어린이집 등 건강민감계층 이용 시설의 인증과 비규제 취약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

□ 추진배경

-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유도
- 법적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비규제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지원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건강민감계층 이용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및 자발적 관리 유도
- 사업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2
 -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
- 주요내용
 1. 우수시설 인증제(신규, 재인증, 사후관리)
 - 대상시설 : 건강민감군 및 청소년 이용시설(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학원, 도서관, PC방)
 - 사업내용 : 실내공기질 평가를 통한 우수 인증시설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제공, 인증기간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 검사 제외,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내 시설홍보 등
 2. 비규제시설 컨설팅
 - 대상시설 : 비규제 다중이용시설, 반지하주택
 - ※ 비규제 다중이용시설 : 어린이집(430㎡ 미만), 경로당, 목욕탕(1,000㎡ 미만), 실내주차장(2,000㎡ 미만), 실내체육시설(1,000석 미만)
 - 사업내용 : 공기질 측정, 오염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등

□ 추진현황('22년 기준)

- 우수시설 인증제 : 526개소 선정(어린이집 426개소)
- 비규제시설 컨설팅 : 310개소 실시(어린이집 222개소)

□ 2023년 세부사업 계획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 사업대상 : 550개소(신규24, 재인증 265, 사후관리 261)
 - ※ 어린이집 443개소 / 그 외 시설 107개소
- 비규제 시설 컨설팅
 - 사업대상 : 250개소(비규제 다중이용시설 220, 반지하주택 30)
 - ※ 어린이집(법정관리 규모 430㎡ 미만) 185개소 / 그 외 시설 65개소

□ 기대효과

- 시설 관리자에 공기질 컨설팅을 시행하여 자발적인 공기질 관리 유도
- 실내공기질 향상에 대한 대중적 요구 부응 및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



6

기타 서울시 어린이 건강 관련 사업

1

어린이집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시민건강국)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영유아의 효과적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 지원대상 : 정원 40인 이하 어린이집 1,450개소(영유아 28,252명)
- 사업내용 : 소규모 어린이집 대상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건강관리 : 신체계측 및 발달단계 평가, 감염병 및 일반 질환관리 등
 - 보육교사 교육 : 응급처치, 구급함 점검, 아동학대 예방 등
- 사업방법 : 민간위탁 ※수탁기관: (사)대한간호협회 서울시간호사회
- 사업기간 : 총 '22.7.1. ~ '24.12.31.
- 소요예산 : 1,588,407천원(시비 100%)

2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영유아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보육실 및 유희실 등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으로 실내공기질 개선
- 기 간 : 2023. 1월 ~ 12월
- 대 상 : 전체 어린이집 4,714개소 22,324실
- 사업내용 : 공기청정기 관리운영비 지원
- 지원기준 : 공기청정기 정기적 관리 비용 지원
 - 지원한도 : (보육실) 월24,900원 지원, (유희실) 월38,800원 지원
- 추진실적 : '22년 어린이집 4,748개소 총 23,011대 지원
- 소요예산 : 사업비 : 4,906백만원(시비 70%, 구비 30% 별도부담)

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기후환경본부, 영유아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동절기(12월~3월)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집중 추진하는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여 영유아의 건강권 보호
- 기 간 : 매년 12월 ~ 3월
- 대 상 : 전체 어린이집 4,522개소
- 내 용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 대응요령 안내 및 영·유아 안전대책 마련
 - 서울시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방안 배포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어린이집 대응요령 구체화
 -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상황 및 공기청정기(주기적 필터교체 여부 등) 관리현황 확인

4

어린이집 IOT기반 환경센서 설치 지원(영유아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밀집도가 높고 오염원이 다양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개선으로 영유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
- 대 상 : 법정관리대상(430㎡ 이상) 어린이집 323개소
 - 미설치된 717개소에 대하여 '23.~'24년에 걸쳐 설치 지원
- 추진내용 : IOT기반 환경센서 설치
 - 측정항목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CO₂),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온도, 습도
 - 표시방법 : 측정기 화면, 웹, 모바일 앱(App)에 항목별 데이터 상태 표시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시 어린이집 관리자에게 자동 알림
- 소요예산 : 119백만원(시비 70%, 구비 30% 별도부담)



토론문

NOTE

04

토론문



기후 위기 시대 영유아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염 정 윤 단장

(한국환경연구원 환경교육연구단)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이상기후보고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재난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227.3일 이어진 동시에 8월에는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봄부터 초여름 더위가 시작되어 이른 열대야와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수가 전년 대비 13.7%나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때 이른 벚꽃의 개화로 인해 벚꽃 없는 벚꽃 축제라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한차례 지나갔으며 언론에서는 역대급 폭염과 장마를 예고하며 이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 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협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피해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후 문제의 부정적인 영향은 취약한 계층에게 더욱 크고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중에서도 어린이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은 가장 적지만 그 결과에는 가장 취약합니다. 정다운 박사님의 발표에서 잘 드러나 있지만 아이들의 기후 취약성은 성인에 비례하여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의 몸집이 성인의 절반이라고 해서 어린이에게 미치는 유해한 영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영유아 시기의 발달상 특징, 여명 기간 등 다양한 요인이 아이들의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며 대부분의 경우 그 영향은 성인에 비해 훨씬 크고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기후 담론에서 이러한 어린이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배제되어 있었고, 적응 정책이나 조치를 설계할 때 제대로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선 발표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정책에서 그려지는 어린이의 상(像)은 취약 계층의 한 위 분류로서 보호받아야 하고 무력한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아이들이 일정 연령에 이르기 전까지는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터부시하게 만듭니다. 누구보다 중요하고 관련성이 높은 이해 당사자가 기후 문제에 대한 논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기후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 우리 세대가 받는 스트레스와 긴장 상황을 어린이들에게까지 전가하지 않겠다는 노력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논의의 장에 늦게 참여할수록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대가 아무런 준비 없이 기후 위기를 직면한 것과 비슷하게 말입니다. 이것이 환경 교육을 더욱더 어린 세대에까지 확장하여 아이들이 기후 문제에 공감하고 기후 리터러시를 갖춘 기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함께 행동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물의 순환, 빛의 반사, 날씨 등 기후 시스템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기후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추상적인 사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영유아들에게 이러한 개념을 가르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기후 리터러시를 단순히 지식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인지(cognition), 정서(affect), 행동(behavior)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동기(motive)가 필요합니다. 동기는 때로는 인지적일수도 때로는 정서적일수도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행동은 기후 문제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심각성 인식에 의해서 추동될 수도 있지만 고통받는 북극곰에 대한 측은지심, 쓰레기통이 넘쳐 산처럼 쌓여있는 플라스틱 컵들에 대한 부끄러움에 의해 추동될 수도 있습니다. 인지와 정서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연구들은 정서를 친환경적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환경 지식 수준은 낮지만 환경 정서가 높은 사람들이 환경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높은 환경 실천 수준을 나타내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환경 정서의 효과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를 위한 환경 교육은 정서의 함양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환경 감수성과 자기 효능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환경 감수성은 “자연환경과 환경 피해를 입은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능력(김남국 외, 2019, pp.16-17)”을 의미합니다. 환경 리터러시의 가장 기본적인 수준을 구성하며 환경 쟁점에 대한 반응의 토대가 됩니다. 환경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환경문제에 대해 감정을 이입하고 공감하며 배려합니다. 환경 감수성은 단시간 내에 학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체화되어야 하는 삶의 태도이자 가치일 수 있습니다. 환경과의 공감을 넘어 우리의 공동체를 소중히 하고 사회를 배려할 수 있는 시민성을 갖추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의 교육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

강연에서 다루어진 어린이가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도 이와 유사한 논의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축은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은 “환경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김남국 외, 2019, pp.16-17)”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노력하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실천을 가지고는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강조한 나머지 거대한 공포감만을 조성하고 그 이후를 생각할 수 없게 만든 건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미래가 핑크빛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 경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조금 다릅니다. 아직 감정에 대한 조절 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위기와 공포는 극복의 대상이 아닌 회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불안함과 죄책감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환경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안식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친구가 되는 긍정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와 우리가 노력하면 기후 문제를 완화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실천의 싹을 틔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부모님과 선생님들 모두가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환경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문무경 박사님의 설문조사 결과가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의 발제와 토론이 시작점이 되어 앞으로 영유아 대상의 환경 교육과 이들을 위한 정책 개발에 대해 더욱 활발하고 적극적인 논의들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토론문

NOTE

미래세대 영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주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국회의원 김미애



육아정책연구소



한국환경연구원

후원



환경부